

파견법 20년, 충남지역 파견노동시장 실태와 문제점

무허가 위장도급업체들이 주도하는 간접고용 노동시장

2018. 12.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차례]

| | |
|--------------------------------------------------------------------|----|
| 과건법 20년, 충남지역 과건노동시장 실태와 문제점 | 7 |
| - 무허가 위장도급업체들이 주도하는 간접고용 노동시장 - | 7 |
| 1. 개요 | 9 |
| 2. 불법(미등록) 직업소개소의 난립 | 15 |
| 3. 사용업체를 숨기는 과건업체위장도급업체들 | 17 |
| 4. 과건업체의 유형과 비중 | 23 |
| 5. 위장도급업체가 주도하는 과건 노동시장 | 27 |
| 6. 중층화된 노동시간과 정규직화 | 33 |
| 7. 직업소개소, 과건업체들의 노동법 무시 | 37 |
| 8. 노동조건 : 무허가 위장도급, 저임금 장시간 노동 | 41 |
| 9. [소결] 직업안정기관의 위상과 역할 제고하고 무허가 과건업체들의 난립 억제방안을 다 양하게 세워야 | 43 |

[별첨자료]

| | |
|-------------------------------------------|----|
| [별첨자료1] (소지역별) 충남과건노동시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표 | 49 |
| [별첨자료2] 충남지역 불법과건실태조사 경과보고 | 52 |
| [별첨자료3] 2018 과건노동시장 실태와 문제점 | 54 |
| [별첨자료4] (지역별) 과건노동시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표 | 71 |
| [별첨자료5] 등록된 과건업체의 위장도급 의심사례 | 79 |
| [별첨자료6] 조사표 | 82 |

[표 차례]

| | |
|------------------------------------------------|----|
| <표 1> 표본의 지역 구성 | 11 |
| <표 2> 표본의 직업정보제공기관 구성 | 12 |
| <표 3> 표본의 구인업체별 구성 | 12 |
| <표 4> 표본의 업종별 분포 | 13 |
| <표 5> 표본의 직종별 분포 | 14 |
| <표 6> 표본의 사업장 규모별 분포 | 14 |
| <표 7> 직업소개 등록 여부 | 15 |
| <표 8> 천안 구인광고상의 파견, 위장도급, 불법직업소개 비율 | 17 |
| <표 9> 사용업체 확인 경로 | 18 |
| <표 10> 사용업체 공개율 및 전화통화 확인율 | 20 |
| <표 11> 구인기관별 사용업체 공개율 및 전화통화 확인률 | 20 |
| <표 12> 파견업체의 유형별 특성과 구성비 | 25 |
| <표 13> 합법 파견업체와 위장도급 업체의 유형별 특성 (전국) | 26 |
| <표 14> 파견등록업체의 위장도급 겸업비중 | 27 |
| <표 15> 충남 등록파견업체의 위장도급 겸업비율 | 27 |
| <표 16> 등록파견업체 B의 위장도급 의심사례와 구인조건 | 32 |
| <표 17> 중층화된 근로계약 형태와 비중 | 35 |
| <표 18> 정규직화 유형과 비중 | 36 |
| <표 19> 정규직화 이후 처우개선 형태와 비중 | 37 |
| <표 20> 성차별, 나이차별, 파견차별, 4대보험 갈취 비율 | 37 |
| <표 21> 구인업체별 성차별, 나이차별, 파견차별, 4대보험 갈취 비율 | 39 |
| <표 23> 충남 구인시장의 노동조건 | 41 |
| <표 24> 구인업체별 노동조건 | 41 |
| <표 25> 구인노동시장에서 확인된 2017년과 2018년 상여금의 변화 | 42 |
| <표 26> 업종별 구인노동시장 노동조건 | 42 |
| <표 27> 직종별 구인노동시장 노동조건 | 43 |

[그림 차례]

| | |
|---------------------------------------------|----|
| <그림 1> 채용대행 사례 (충남) | 15 |
| <그림 2> 채용대행 관리자 모집 사례 (충남) | 16 |
| <그림 3> 사업장 고지 여부 | 18 |
| <그림 4> 사용업체 위치가 영터리로 기재된 사례 1 | 19 |
| <그림 5> 사용업체 위치가 영터리로 기재된 사례2 | 19 |
| <그림 6> 민간직업정보제공사업자와 공공직업정보제공(워크넷)의 차이 | 20 |
| <그림 7> 이명동체 사례1 | 21 |
| <그림 8> 이명동체 사례2 | 22 |
| <그림 9> 이명동체 사례3 | 22 |
| <그림 10> 이명동체 사례4 (위치) | 22 |
| <그림 11> 복합형 위장도급 A기업 사례 | 28 |
| <그림 12> 복합형 위장도급 B기업 사례 | 29 |
| <그림 13> 파견업체의 고용차별, 임금차별 사례 (충남) | 38 |
| <그림 14> 직업소개소의 임금 차별 사례(충남) | 39 |

파견법 20년, 충남지역 파견노동시장 실태와 문제점

무허가 위장도급업체들이 주도하는
간접고용 노동시장

박준도 |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1. 개요

1) 조사와 분석

① 조사

○ 1차 조사 : 8.20 ~ 10.31

○ 조사대상

- 알바몬, 사람인, 알바천국, 잡코리아, 파인드잡(/당진, 서산벼룩시장), 교차로 등 민간직업 정보제공기관(이하 민간기관)과 워크넷, 아산일자리지원센터, 당진통합일자리센터, 서산종합일자리센터(이상 공공기관)의 구인광고 중 천안·아산·당진·서산(이하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구인광고

○ 표본수집

- 193건의 구인광고 수집
- 이 중 74건은 구인업체와 통화
- 여기서 확인된 구인업체, 사용업체 기본정보와 구인요건, 즉 하는 일, 임금 및 임금형태, 출퇴근 시간, 노동시간, 정규직 전환 여부 및 요건, 처우개선, 근로계약 주체 등을 기본 데이터화

○ 2차 조사 : 10.8 ~ 10.27

○ 조사대상

- 천안, 보령에 소재한 38개의 허가된 파견업체(이하 파견전문업체) 구인광고를 전수조사함. 4대 민간 직업정보제공기관(사람인,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에서 진행된 구인광고.
- 위장도급 의심사례 5개 업체 10건을 취합함.
- 또한 천안에서 활동하는 파견업체 1개 업체, 4건을 추가로 취합.

② 분석

○ 분석시기 : 11.1 ~ 11.30

○ 분석대상 : 1차 153건 + 2차 10건

- 사용업체 이름과 위치 확인 (1차)
- 중복 및 불충분한 표본 제외 (1차)
- 사용업체의 업종 세세분류(1차, 2차는 대분류만), 구직 직종 대분류(1차, 2차)
- 직업소개업체들의 직업소개소 등록 여부, 파견업체(위장도급포함)의 파견업 허가 여부 확인 (1차)

- 파견 및 위장도급, 미등록 직업소개 의심사례 분류 (1차, 2차)
 - 파견 : 구인업체와 사용업체가 다른 사례 (1차, 2차)
 - 위장도급 : 구인업체와 사용업체가 다르고, 또한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직종에서의 구인광고 사례 (1차, 2차)
 - 불법소개 : 미등록 직업소개소의 직업소개 사례 (1차)

- 파견업체의 특성 분류 : 수집된 파견업체(위장도급 포함)의 4대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사람인,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 구인광고를 확인해 파견업체 특성(단순형, 전문형, 복합형) 분류 (1차, 2차)
- 중층적인 노동시장과 정규직화 경로 유형화 (1차)
- 구인노동시장에서의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계산 (1차)

③ 한계

- 조사의 목적이 파견 및 위장도급 의심 구인광고를 모아 그 특징을 살펴보려 한 것임. 이 표본으로 충남지역 노동시장 일반을 추론하는 것은 불가함.
- 제조업 경기가 불황이고 그에 따라 파견 노동시장이 상당히 움츠러든 상태임. 특정 분야, 일정 수준의 기업만이 내보낸 구인광고만이 취합된 것일 수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함.

- 한편 2018년 충남지역 공단실태조사의 경우 구인광고 기초조사 시점과 전화조사 시점 사이에 긴 시간적 차이가 있어 구인기간이 오래 지속된 데이터만 보정됨. 모든 데이터가 일정한 조건 아래 취합되지 않고 일부 편중되어 있어, 기술구성을 위한 교차분석은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함.
- 이렇게 취합된 표본으로 노동시장 특성을 분석하려면 아래 표본구성의 특징을 염두에 두어야 함.

④ 분석 방법

- 시기를 맞춰 동일한 표본 수집 방식, 동일한 분석 방법으로 조사사업을 진행한, 서울, 안산, 인천과 비교 분석함. 비교분석 방식은 교차분석이 어려운 표본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충남지역의 구인노동시장을 분별력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
- 특히 안산 반월·시화공단과의 구인광고와 비교분석을 하였는데, 표본 수도 서로 비슷한 데다 충남처럼 반숙력직 비중이 높기 때문. 다만 안산의 경우 전기전자업종 비중이 높고 반월·시화 공단은 배후지 공단 성격이 짙어, 천안·아산·당진 지역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음. 이 역시 염두에 두고 비교해야 할 것임.

2) 표본의 구성과 특징

| | 빈도 | 비율 |
|------------|------------|---------------|
| 천안 | 82 | 55.0% |
| 아산 | 47 | 31.5% |
| 당진 | 19 | 12.8% |
| 서산 | 1 | 0.7% |
| 총합계 | 149 | 100.0% |

<표 1> 표본의 지역 구성

- 총 149건의 구인 정보가 취합되었는데, 천안지역 구인 정보가 82건(55.0%)으로 가장 많았음. 아산이 47건(31.5%), 당진이 19건(12.8%), 서산은 1건.

| | 충남 | | 안산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민간 | 132 | 88.6% | 124 | 91.2% |
| 알바몬 | 8 | 5.4% | 31 | 22.8% |
| 사람인 | 21 | 14.1% | 39 | 28.7% |
| 알바천국 | 15 | 10.1% | 27 | 19.9% |
| 잡코리아 | 46 | 30.9% | 1 | 0.7% |
| 인크루트 | | 0.0% | 26 | 19.1% |
| 파인드잡 | 23 | 15.4% | | 0.0% |
| 기타 | 19 | 12.8% | | 0.0% |
| 공공 | 17 | 11.4% | 12 | 8.8% |
| 일자리지원센터 | 8 | 5.4% | | 0.0% |
| 워크넷 | 9 | 6.0% | 12 | 8.8% |
| 전체 | 149 | 100.0% | 136 | 100.0% |

<표 2> 표본의 직업정보제공기관 구성

- 취합된 구인 정보 대다수가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에서 취합된 것임. 132건으로 88.6%를 차지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17건 11.4%임. 민간기관 중에서도 잡코리아에서 취합한 정보가 다수. 30.9%.
- 참고로 안산은 136건 중 39건을 사람인(28.7%)에서 취합.

| | 충남 | | 안산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직접구인 | 3 | 2.0% | 14 | 10.3% |
| 파견업체 구인 | 115 | 77.2% | 48 | 35.3% |
| 직업소개소 구인 | 31 | 20.8% | 74 | 54.4% |
| 전체 | 149 | 100.0% | 136 | 100.0% |

<표 3> 표본의 구인업체별 구성

- 파견업체 구인광고가 115건(77.2%)으로 가장 많았음. 직업소개소 구인광고는 31건 (20.8%). 취합된 구인광고 중 직접구인 광고는 3건에 불과
- 파견천국이라 불리는 안산은 직업소개소 구인광고가 54.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아.

| | 충남 | | 안산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제조업 | 142 | 95.3% | 130 | 95.6% |
| 전기·전자 | 36 | 24.2% | 96 | 70.6% |
| 자동차·부품 | 42 | 28.2% | 9 | 6.6% |
| 기계·철강 | 18 | 12.1% | 10 | 7.4% |
| 석유화학 | 24 | 16.1% | 6 | 4.4% |
| 식품·제조 | 11 | 7.4% | 4 | 2.9% |
| 기타제조 | 9 | 6.0% | 1 | 0.7% |
| 섬유·의복 | 1 | 0.7% | 2 | 1.5% |
| 목재·종이 | 1 | 0.7% | 2 | 1.5% |
| 비제조 | 7 | 4.7% | 6 | 4.4% |
| 운수·도소매 | 7 | 4.7% | 3 | 2.2% |
| 정보·기술 | | 0.0% | 2 | 1.5% |
| 사업지원 | | 0.0% | 1 | 0.7% |
| 기타 | | 0.0% | | 0.0% |
| 전체 | 149 | 100.0% | 136 | 100.0% |

<표 4> 표본의 업종별 분포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직 구인광고가 대다수를 구성함. 95.3%(142건). 그리고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부품이 28.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기전자 24.2%(36건), 석유화학(24건) 순.
- 안산은 전기전자 비중이 매우 높음. 70.6%. 안산도 자동차산업 비중이 높는데 관련 취업 정보는 취합되지 않음.

| | 충남 | | 안산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생산직 | 144 | 96.6% | 135 | 99.3% |
| 반숙련직 | 113 | 75.8% | 113 | 83.1% |
| 단순직 | 22 | 14.8% | 12 | 8.8% |
| 숙련직 | 9 | 6.0% | 10 | 7.4% |
| 사무직 | 5 | 3.4% | 1 | 0.7% |
| 사무직 | 5 | 3.4% | 1 | 0.7% |
| 전문직 | | 0.0% | | 0.0% |
| 서비스직 | | 0.0% | | 0.0% |
| 판매직 | | 0.0% | | 0.0% |
| 서비스직 | | 0.0% | | 0.0% |
| 전체 | 149 | 100.0% | 136 | 100.0% |

<표 5> 표본의 직종별 분포

- 직종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직이 96.6%(144건). 그 중에서도 반숙련직 일자리가 75.8% (113건).
- 이런 특징은 안산도 비슷. 99.3%가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고 기계장치를 조직하는 반숙련 직이 83.1%.

| 사업장 규모 | 충남 | | 안산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1~99 | 32 | 39.5% | 36 | 31.9% |
| 100~299 | 21 | 25.9% | 12 | 10.6% |
| 300~999 | 24 | 29.6% | 38 | 33.6% |
| 1000~ | 4 | 4.9% | 27 | 23.9% |
| 소계 | 81 | 100.0% | 113 | 100.0% |

<표 6> 표본의 사업장 규모별 분포

-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충남의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39.5%로 높게 나타남. 하지만 안산과 달리 1000인 이상 사업장 비중은 크게 낮은데, 유의해야 할 것이 사업장 규모는 사용사업체를 어떻게든 알아내야 가능한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149건 중 81건 데이터만 사업장 정보를 추정해낼 수 있었음.
- 하지만 안산은 기초조사와 전화조사가 동시에 이뤄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전화 면접이라도 하면 사업장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서 관련 정보가 일정하게 채워진 것. 1000

인 이상 사업장 비중이 23.9%로 나타난 것은 그 결과.

- 충남도 공단의 특성상 1000인 이상 사업장 비중이 높아야 하지만, 대기업일수록 사업장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탓에 편중된 정보를 얻게 된 것. 이를 감안해야 함.

2. 불법(미등록) 직업소개소의 난립

| | 충남 | | 안산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직업소개 | 34 | 22.8% | 74 | 54.4% |
| 등록소개소 | 21 | [61.8%] | 39 | [52.7%] |
| 미등록업체 | 13 | [38.2%] | 35 | [47.3%] |
| 전체 | 149 | 100.0% | 136 | 100.0% |

<표 7> 직업소개 등록 여부

- 이번 실태조사에서 직업소개소의 구인광고 비율이 20.8%인 것으로 나타남. 안산의 직업소개소 비중 54.4%에 비하면 낮지만, 충남 역시 직업소개소의 노동력 중개행위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채용대행



<그림 1> 채용대행 사례 (충남)

- <그림 1> 에서 보듯 34곳의 직업소개소 중 4곳은 자신의 직업소개업무를 ‘채용대행’이라 규정하고 있음.
- 채용대행이란 ‘기업의 채용서비스 전반을 종합적으로 대행하거나 구인신청, 모집, 서류 접수 등 일부 서비스만 대행’하는 것을 가리킴. 언뜻 보면 기업의 인사 관련 업무 중 외주

화된 일부 업무를 대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노동력을 중개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직업소개사업임. 기존 직업소개사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은 구직자에게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



<그림 2> 채용대행 관리자 모집 사례 (충남)

- 고용노동부는 채용대행을 직업소개의 일환으로 보고 ‘채용대행을 업으로 하는 경우 직업 소개사업 등록이 요구된다.’고 행정해석 한 바 있는데,(2004.6.14. 노동시장기구과-2149) 서울, 안산, 인천을 중심으로 채용대행이라는 새로운 직업소개사업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안산의 직업소개 비율이 높은 것은 파견직을 채용대행으로 대체하는 듯한 양상이 확인되었기 때문. 직업소개의 연장선에 불과한 ‘모집형 파견’은 언제든지 직업소개를 전문화하는 형태로 발달할 수도 있는데, ‘채용대행’이 바로 그 표현인 것.
- ‘채용대행’을 하려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 직업상담을 해야 함. 이 요건은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론자들이 오래전부터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임. 유료직업소개소가 구직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전근대적 관행을 폐지하려면 인사채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소개사업(파견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게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모집형 등록 파견’이나 ‘직업소개’는 서로 규율하는 법률이 다르지만, 둘 다 임시일용직을 상대로 하는 노동력 중개행위라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같은 의미.
- 1998년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 이후 직업소개소를 규율하는 마지막 규제가 직업상담사의 자질과 역할임. 이 규율마저 폐기하자는 건 ‘유료 직업소개’의 전면 자율화를 요구하는 것.
- 직업안정법을 개악하는 것은 파견 확대로 귀결되고 말 것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에 직면해 규제 완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감. 최근 임의로 채용대행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파견업체들이 늘어난 건 이를 배경으로 했던 것.

- 한편 충남에서 확인된 4건의 사례는 모두 등록된 직업소개소의 채용대행¹⁾

○ 미등록 직업소개소의 난립, 과도한 수수료

- 이번에 조사된 직업소개소 구인광고 중 38.2%(31건 중 13건)가 미등록 직업소개소의 구인광고로 나타남. 직업상담소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업는 임의 사업체가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것.
- 한편 충남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안내해주는 직업소개 수수료가 과도해 보임. 서울의 경우 3개월 근로계약으로 가정해도 소개비로 12만 원 선인데 충남은 일괄 15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구직자에 대한 직업수수료는 ‘지급받은 임금’의 3%이며 3개월 치가 최대임. 최저임금 3%, 3개월 치를 다 더해도 14.1만 원인데, 이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건, 식대 등 수당이 포함된 실제로 지급 받을 임금의 최대치를 가정해 수수료를 유교하고 있는 것.
- 심지어 ‘나중에 회사에서 15만 원 받게 된다.’고 감언이설로 속이거나 아예 면접때부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음. ‘소개비를 입금해주어야 일하는 곳 사업체 정보를 알려준다.’ 며 으름장을 놓기도 한 것.

3. 사용업체를 숨기는 파견업체·위장도급업체들

| | 전체 | 파견 | 위장도급 | 불법소개 |
|----|-------|-------|-------|------|
| 빈도 | 149 | 132 | 132 | 13 |
| 비율 | 100.0 | 88.6% | 88.6% | 8.7% |

<표 8> 천안 구인광고상의 파견, 위장도급, 불법직업소개 비율

- 파견 : 구인업체(근로계약)와 사용업체(일하는 곳)가 다른 경우, 132건 (88.6%)

1) 파견업과 직업소개업을 합법적으로 허가받았다 할지라도 동시에 겸업하는 것은 문제. 파견과 도급, 직업소개 사업이 경계 없이 이뤄질 경우, 직업소개사업에 부여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이 줄어들어는 것은 물론, 파견을 제한하려는 법규제조차 무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 모집형 파견과 직업소개 기능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직업소개와 파견을 겸업하면, 파견법을 적용하려 들면 직업소개행위를 했을 뿐이라 할 것이고, 직안법을 적용하려 하면 파견을 했을 뿐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

- 위장도급 : 구인업체와 사용업체가 다르며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직종인 경우. 132건 (88.6%)
- 불법소개 :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직업만 알선하는데 미등록 직업소개소인 경우. 13건 (전체 구인광고 대비 8.7%)

1) 사용업체를 알기 힘든 충남 노동시장

| | 충남 | | 안산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기본 | 30 | 20.1% | 64 | 47.1% |
| 전화 | 38 | 25.5% | 49 | 36.0% |
| 모름 | 73 | 49.0% | 20 | 14.7% |
| 추적 | 8 | 5.4% | 3 | 2.2% |
| 총합계 | 149 | 100.0% | 136 | 100.0% |

<표 9> 사용업체 확인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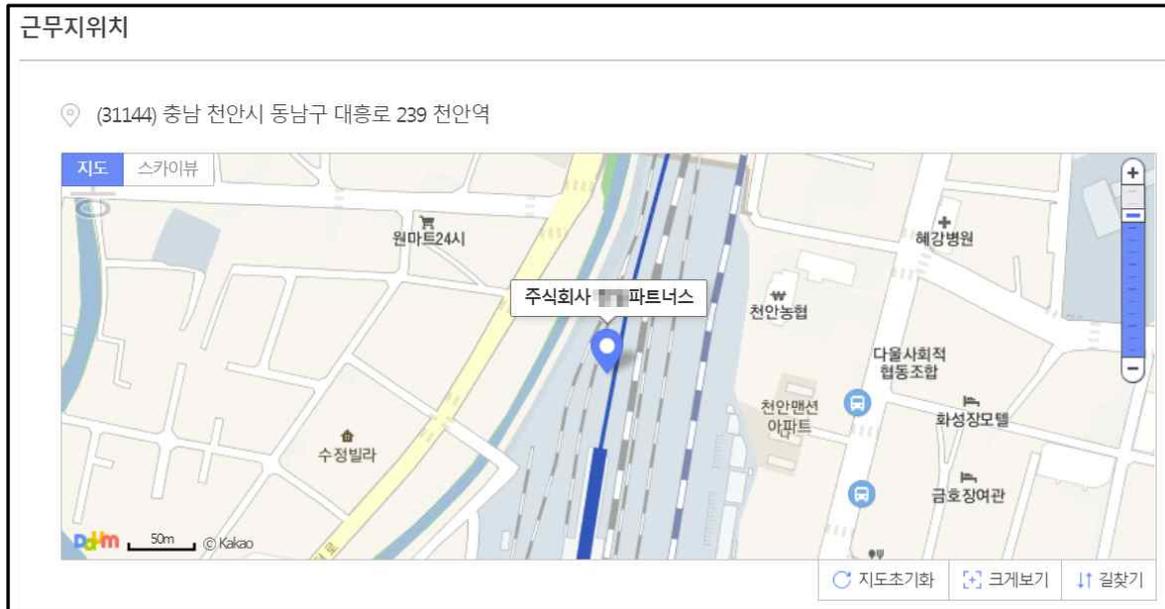
- 충남 노동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사용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는 것임. 구인광고상에서 사용업체를 알 수 있는 비율은 20.1%밖에 안 됨. 전화를 해야(25.5%) 조금 더 알아낼 수 있는데, 그래야 사용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45.6%임.²⁾

2) 사용업체를 안 알려주는 경향은 2017년에도 마찬가지였음. 사업장 고지 여부에 대해 당시에는 인터넷 구인 정보와 전화 통화여부를 구별하지 않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작년에도 사업장 공개비율은 58.4%에 불과했음. (아래 그래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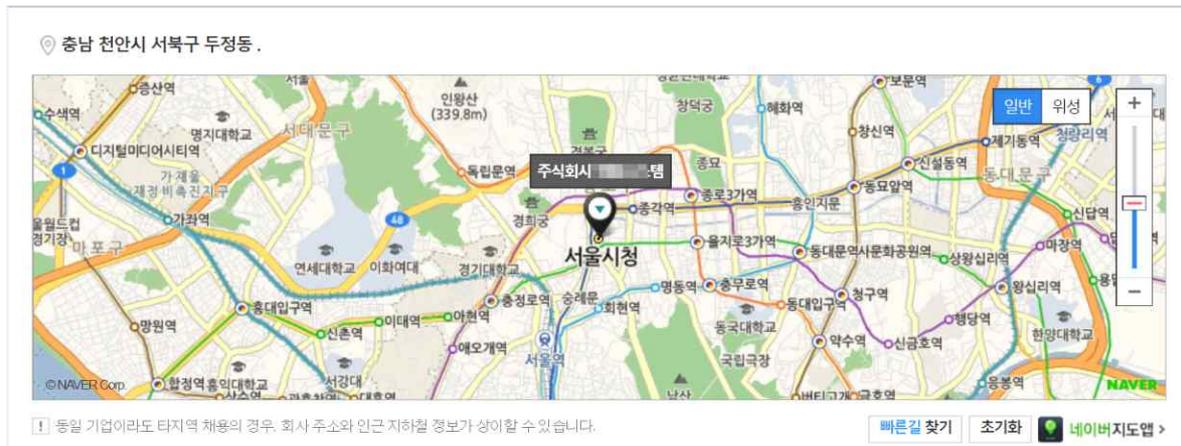
<그림 3> 사업장 고지 여부

- 사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기본과정에서 알아내기 어려운 건, 파견업체나 직업소개소가 구인광고를 낼 때,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했기 때문.



<그림 4> 사용업체 위치가 엉터리로 기재된 사례 1

근무환경



<그림 5> 사용업체 위치가 엉터리로 기재된 사례2

- <그림 5>처럼 파견사업주들이 직업정보제공기관에 구인광고를 낼 때, 근무지 위치를 천안시 두정동 등 두리뭉실하게 알려주거나, 천안역 심지어는 서울시청을 가리키도록 엉터리로 입력해 놓기 때문.
- 잡코리아나 알바몬 같은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은 근무지 위치를 정확히 입력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파견업체(위장도급업체)들이 알바천국, 사람인 등에 직업정보를 올리는 걸 선호하는 것은 이런 이유.

[재용정보 공유]
 - 동의합니다 체크 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 동시 게재됩니다
 - 게재 동의 하더라도 임금 조건 및 근로시간 등이 불명확한 경우 게재되지 않습니다.

<그림 6> 민간직업정보제공사업자와 공공직업정보제공(워크넷)의 차이

- <그림 6>에서 보듯 워크넷 등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기관들은 근무지 위치 등 노동조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도록 되어있고, 그렇지 못한 구인광고의 경우 게재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 전체 | | 민간 | | 공공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공개 | 30 | 20.1% | 19 | 14.4% | 11 | 64.7% |
| 비공개 | 119 | 79.9% | 113 | 85.6% | 6 | 35.3% |
| 통화미확인 | 33 | 46.5% | 32 | 47.1% | 1 | 33.3% |
| 통화확인 | 38 | 53.5% | 36 | 52.9% | 2 | 66.7% |
| 총합계 | 149 | 100.0% | 132 | 100.0% | 17 | 100.0% |

<표 10> 사용업체 공개율 및 전화통화 확인율

- 하지만 그림에도 충남에서는 공공기관에서조차 사업장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6건이나 발견됨. 근무처 위치 등 사용업체 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

2) 사용업체를 끝까지 숨기는 파견업체들

| | 전체 | | 파견업체 구인 | | 직접 구인 | | 직업소개소 구인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공개 | 29 | 19.5% | 23 | 20.0% | 3 | 100.0% | 3 | 9.7% |
| 비공개 | 120 | 80.5% | 92 | 80.0% | | 0.0% | 28 | 90.3% |
| ↳ 통화해서 확인 | 39 | 54.2% | 25 | 49.0% | | | 14 | 66.7% |
| ↳ 끝까지 비공개 | 33 | 45.8% | 26 | 51.0% | | | 7 | 33.3% |
| 총합계 | 149 | 100.0% | 115 | 100.0% | 3 | 100.0% | 31 | 100.0% |

<표 11> 구인기관별 사용업체 공개율 및 전화통화 확인률

- 직업정보 제공기관에서 구인정보가 불충분하다면 전화 통화과정에서라도 일하는 사업장 정보를 알려주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함. 파견업체들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는 비율이 51.0%나 됨. 직업소개소도 33.3%는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음.

사용업체 숨기기. 허가된 파견업체 & 등록 직업소개소의 경우 [천안]

- 믹스커피 생산업체 어디?
- = 왜?
- 내가 가서 일할 곳인데 '왜' 라니?
- = 면접하면 알게 될 공장인데, 업체명 물어보니까.
- 당황. 면접 보면 어디랑 근로계약?
- = 아웃소싱. 포장 아웃소싱 다 함. 우리 직원.
- ○○ 스텝스 정규직?
- = 넵.
- 그런데 믹스 커피 공장 어딘지는 안 알려주나?
- = 삽교. 삽교. 산업단지.

3) 이명동체, 연락처가 같은 파견업체들

(주) ■■■■■ **탐**

[당진/아산] 현대/기아 1차 생산사원 모집

(주) ■■■■■은 2017년에 설립된 회사로 현대기아1차 밴더의 사내 협력사입니다.
발전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당진,아산쪽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림 7> 이명동체 사례1

[아산]자동차부품 생산사원모집

(주)는 2008년에 설립된 회사로 사원수 70명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경기 평택시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자부품 및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8> 이명동체 사례2



<그림 9> 이명동체 사례3

- 사업체 이름은 다르지만 (핸드폰) 전화번호가 같은, 같은 담당자가 상담하는 사례도 5건이나 발견됨. 위 그림들에서 보듯, (주)보○과 (주)○○스탑, (주)에○○탑은 이름도 다르고, 설립년도도 다르며 사업장 규모도 다름. 하지만 핸드폰 연락처가 같고, 같은 사람이 상담.
- 이 회사들 중 (주)에○○탑은 (주)에○○은 서로 사무실 연락처가 같음. 이들 4개의 기업은 이름은 다른데, 같은 연락처를 내걸고 동일한 상담자가 ‘모집’ 혹은 ‘직업상담’을 하고 있었던 것.



<그림 10> 이명동체 사례4 (위치)

- 더 흥미로운 것은 (주)에○○의 경우 직업소개소로 등록된 업체임. 그런데 이 기업은 스스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한다면서 워크넷에 직원 ‘모집’ 광고를 냄. 모집 광고에 나타난 주소를 찾아가면 위 그림처럼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상가임. 100여 명의 직원과 자동차부품생산을 한다는 기업의 주소가 아파트 상가로 되어 있는 것.
- 이 4개 사례 모두 사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 4개 사례 모두 아산테크노밸리와 당진석문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를 가리키고 있고, 4개 사례 모두 동일 노동조건을 내걸고 있음. 구인업체와 사용업체의 ‘실체’는 서로 같을 것으로 추정됨.

4. 파견업체의 유형과 비중

파견업체(/위장도급업체)의 특성별 분류³⁾

○ 단순형

- 단수(소수)의 파견사용사업주 혹은 원청사업주만을 상대하며, 소수의 직업군에서 사용업체의 모집을 대행하면서 파견을 하거나 혹은 위장도급을 하는 형태.
- 단순형은 파견업체로서는 초보적 단계 혹은 영세성을 의미.
- 단순형 위장도급은 맥락이 다른데 독립적 사업체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부터 논란이 되기 때문. 실제로는 바지사장·소사장에 불과하기 때문.

○ 전문형

- 복수의 파견사용사업주 혹은 원청 사업주를 상대하며, 동일·유사업종과 직종에서 파견 혹은 위장도급을 하는 형태.
- 전문형은 파견업체가 실질적으로 기업화되는 것을 의미. 특히 IT산업, 물류와 컨택산업(콜센터)에서 파견업체들은 전문화를 지향. 전문화된 파견업체들은 스스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도 함. 컨택전문 파견업체들이 스스로 콜센터 사업을 하는 것이 대표적.
- 특정 직무와 직종에 한정해, 직무를 분리하고 사내하도급화해서, 이것만을 전문적으로 ‘도급’하려는 (위장)도급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보임. 물류와 포장 혹은 단순조립과 최종검사(단순 검사)에 한정해서 도급 활동을 하는 것.
- 파견이 허용된 직무에서 전문화를 시도하는 것은 해당 직무의 외주화, 해당 업종의 분업화를 촉진하지만, 파견이 불허된 직무에서 위장도급과 함께 전문화를 시도하면 이는 산업의 고도화·분업화보다는 고용 불안정성만 높일 뿐임.

- 공정 구분 이상으로 전문화된 위주화가 불가능한데다, 과도한 위탁생산은 사실 후진적인 생산관리방식이기 때문. 직접생산공정에서 특정 공정에 대한 전문적 하도급이 불가능한데, 이를 (위장)도급하는 것은 실제로는 해당 공정에서 임시일용직을 파견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획에 불과함. 파견법상 단기 파견 말 그대로 임시·간헐적 업무에만 가능. 상시업무에 단기파견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 복합형

- 복수의 파견사업주 혹은 원청사업주를 상대하면서, 동시에 전혀 다른 업종과 상이한 직종, 심지어는 상이한 직무에서 파견 혹은 위장도급을 하는 형태를 가리킴. 컨택산업과 같이 특정 분야가 아니라, 콜센터, 일반사무직에서부터 물류, 포장, 판매는 물론 직접적인 생산 공정으로까지 파견 혹은 도급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려는 것.
- 복합형 파견은 파견업체가 노동력 중개행위를 업종과 직종에 가리지 않고 전개하는 것을 의미. 복합형 파견은 파견근로에 대한 완전 합법화를 전제. 이는 당연히 사용자의 책임성 문제와 이중착취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음.
- 설령 노동권 쟁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복합형 파견이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것부터 의문. 노동력 공급의 ‘고도화’는 기술 혁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
- 더구나 복합형 (위장)도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식품 등 상이한 업종에서, 기계장치 작동, 조립, 포장 등 상이한 직종의 노동자를 모집하는 도급을, 전문분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 그런데 이와 같은 복합형 위장도급이 제조업에서 실제로 가능한지는 근본적으로 의문. 투입되는 노동력의 직무는 물론, 제조업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생산과정조차 다른 이질적인 생산 공정을 ‘도급’업체가 모두 지도·감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혁신된’ 생산기술은 전 세계 어느 기업도 보유하지 못한 ‘초유의 기술’이기 때문.
- 더구나 이런 복합형 도급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설비장치들을 해당 기업이 보유 (혹은 관리)하고 있어야 함. 웬만한 재벌대기업도 엄두를 낼 수 없는 자본금을 동원해 막대한 시설설비투자를 해야 가능한 사업. 그런데 실제 위장도급 전문업체들의 자본금 투자 규모는 수억원 많아야 수십억 선에 불과.
- ‘복합형’ 도급은 법 논리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산업적으로는 불가능. 법망을 교묘히 피하려는 위장도급에 불과.

3) 서울남부, 안산, 인천, 충남 파견업체 실태조사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함. 2017년 실태조사 당시에는 이중생

- 위 설명을 참조해 이질적인 분야, 이질적인 공정에서 여러 기업을 상대로 파견 및 ‘도급’을 하는 파견업체를 <복합형 파견>, 유사·동질적인 분야에서 여러 기업을 상대로 파견 및 ‘도급’을 하면 <전문형 파견>, 하나 혹은 소수의 기업만을 상대로 파견 및 ‘도급’을 하면 <단순형 파견>으로 구별해,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파견업체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 충남 | | 서울남부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단순형 | 47 | 35.6% | 3 | 4.3% |
| 전문형 | 6 | 4.5% | 41 | 59.4% |
| 컨택전문 | | 0.0% | 34 | 49.3% |
| 물류포장 | 2 | 1.5% | 4 | 5.8% |
| 동종생산 | 4 | 3.0% | | 0.0% |
| IT전문 | | 0.0% | 2 | 2.9% |
| 판매전문 | | 0.0% | 1 | 1.4% |
| 복합형 | 79 | 59.8% | 25 | 36.2% |
| 이종생산 | 64 | 48.5% | 6 | 8.7% |
| 이종생산, 그외 | 7 | 5.3% | 3 | 4.3% |
| 생산, 물류 등 | 8 | 6.1% | 2 | 2.9% |
| 콜센터, 생산 등 | | 0.0% | 10 | 14.5% |
| 사업지원, 물류 등 | | 0.0% | 4 | 5.8% |
| 파견 전체 | 132 | 100.0% | 69 | 100.0% |

<표 12> 파견업체의 유형별 특성과 구성비

- 충남은 복합형 파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60.6%(80명)이며, 전문형 파견은 6건으로 비중이 낮으며, 아예 반대로 단순형 파견이 34.8%(46명)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종생산을 하는 복합형 파견이 49.2%(65건)로 가장 많았고, 물류를 경하고 있는 경우도 6.1% 가량 발견됨.
- 한편, 합법파견이 많은 서울남부와 비교하면 크게 대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서울남부는 전문형 파견 비율이 높기 때문임. 이는 컨택산업에서와 같이 특정 업종에만 집중

산을 ‘전문형’으로, 충남 경계를 넘어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한 것을 ‘복합형’으로 규정할 바 있음. 하지만 서울남부에서 동종 분야에 특화된 파견업체를 다수 발견하면서 개념을 재구성했는데, ‘전문화’란 특정분야에서의 전문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업범위보다는 영업의 목표가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파견업체 유형을 재정의함. 기업의 발전 방향에 맞게 동종분야에 특화된 파견업체를 전문형으로, 이종분야로 넓히면 복합형으로 재정의한 것.

된 전문형 파건은 합법적 파건에서나 발달함.

| | [합법] 파건 | | 위장도급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단순형 | 1 | 2.0% | 134 | 37.3% |
| 전문형 | 36 | 72.0% | 20 | 5.6% |
| 컨택전문 | 34 | 68.0% | | 0.0% |
| 물류포장 | | 0.0% | 10 | 2.8% |
| 동종생산 | | 0.0% | 9 | 2.5% |
| IT전문 | 2 | 4.0% | | 0.0% |
| 판매전문 | | 0.0% | 1 | 0.3% |
| 복합형 | 13 | 26.0% | 205 | 57.1% |
| 이종생산 | 1 | 2.0% | 166 | 46.2% |
| 이종생산, 그외 | | 0.0% | 16 | 4.5% |
| 생산, 물류 등 | | 0.0% | 18 | 5.0% |
| 콜센터, 생산 등 | 9 | 18.0% | 3 | 0.8% |
| 사업지원, 물류 등 | 3 | 6.0% | 2 | 0.6% |
| 소계 | 50 | 100.0% | 359 | 100.0% |

<표 13> 합법 파건업체와 위장도급 업체의 유형별 특성 (전국)

- <표 13>에서 보듯 [합법]파건에서는 전문형이 발달하는 한편, 불법위장도급에서는 복합형 파건이 발달함. 그리고 위장도급에서는 전문형 파건은 극히 적게 나타나고, 오히려 단순형 파건 비중이 더 높음. 이는 위장도급, 불법'파건'은 파건업자들이 사용사업주에게 완전히 종속된 바지사장(단순형 파건)이거나, 아니면 경제적 산업적 맥락과는 관계없는 무작위 '인력공급사업'을 하고 있다(복합형 파건)는 방증임. 충남은 위장도급 노동시장에서의 파건업체 발달 양상을 따라가고 있음.
- 한편 위장도급에서 단순형 파건보다 복합형 파건 비중이 높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형 파건은 사용사업주가 불법파건 노동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행위자이지만, 복합형 파건은 파건사업주도 중요한 행위자이기 때문. 따라서 복합형 파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서울, 안산, 천안, 인천, 대구지역 공단에서만큼은 대기업 사용사업주 못지않게 파건 공급자인 파건업체도 상당한 정도의 행위자로,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을 것임을 시사.

5. 위장도급업체가 주도하는 파견 노동시장

1) 무허가 임의업체의 위장도급

| | 충남 | | 안산 | | 서울남부 | | 인천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파견·위장도급 | 132 | 88.6% | 81 | 59.6 | 69 | 27.1% | 87 | 97.8% |
| 허가된 파견업체 | 14 | [10.6%] | 53 | 65.4 | 59 | 85.5% | 54 | 62.1% |
| 무허가 임의업체 | 118 | [89.4%] | 28 | 34.6 | 10 | 14.5% | 33 | 37.9% |
| 총합계 | 149 | 100.0% | 136 | 100.0 | 255 | 100.0% | 89 | 100.0% |

<표 14> 파견등록업체의 위장도급 겸업비중

- 충남에서 파견은 허가된 파견업체보다는 무허가 임의 사업체가 위장도급하는 비율이 훨씬 됨. 위장도급업체 중 89.4%나 임의사업체. 참고로 안산, 서울, 인천은 허가된 파견업체의 위장도급 비율이 더 높음.

| | |
|-------------|-----------|
| 천안보령 | 10 |
| 굿○닝 아○싱 | 1 |
| 대○기○개발 | 2 |
| 동○에○알 | 1 |
| 위○잡 | 3 |
| 제○스○플 | 3 |

| | 위장도급 | 파견업체 | 겸업 |
|----|------|------|-------|
| 천안 | 5 | 32 | 15.6% |
| 보령 | | 6 | 0.0% |

<표 15> 충남 등록파견업체의 위장도급 겸업비율

- 충남에서 정식 파견업체의 위장도급 비율이 낮은 건, 정식 파견업체의 위장도급 겸업비율이 낮다기 보다는, 천안지청과 보령지청에 등록된 파견업체의 절대 수 자체가 적기 때문임. 이들이 충남의 38개 업체가 등록되어있고, 이중 5개 업체가 파견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 파견업체의 수 자체가 적다보니 파견노동시장의 주요 행위자는 무허가 임의업체이거나 총

남이 아닌 서울 수도권에서 허가받은 파견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1) 무허가 파견업체의 위장도급 1

주식회사 [블루]
 삼성/LG 반도체 장비 세정 상여100 업무 많음. 11/26~12/26(수) ☆ **즉시지원**
 경력무관 학력무관 기간제-계약직 3,000~3,200 경기 평택시
 가구, 사무용가구, 제조가공, 생산, 조립, 포장코팅, 검사검품, 바이오, 제약

주식회사 [블루]
 산업용 공조기 설비 및 냉난방장비 사원 모집 11/15~내일마감 ☆ **즉시지원**
 경력무관 학력무관 정규직 충남 천안시 동남구
 기계, 기계설비, 제조가공, 생산, 대기업생산직, 조립, 검사검품

주식회사 [블루]
 [LG제철사]안성 전기차 배터리커버 검사 상여300 사원 모집 11/16~12/16(일) ☆ **즉시지원**
 경력무관 학력무관 정규직 경기 안성시
 자동차부품, 제조가공, 생산

주식회사 [블루]
 [핸드폰]3조2교대 남,여정규사원모집/통근/기숙사/상여/주부가능 11/16~12/16(일) ☆ **즉시지원**
 경력무관 고졸+ 정규직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반도체, 제조가공, 생산, 대기업생산직, 조립, 포장코팅

주식회사 [블루]
 [대기업]신입직원채용/가정용히터생산-주간/남,여/기숙 11/16~12/16(일) ☆ **즉시지원**
 경력무관 학력무관 정규직 충남 천안시 동남구
 기계, 자동차, 자동차부품, 제조가공, 생산, 대기업생산직, 조립, 검사검품

주식회사 [블루]
 아웃소싱 TM 전문 담당 직원 모집 11/23~12/23(일) ☆ **즉시지원**
 경력무관 학력무관 정규직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동차, 자동차부품, 급여관리, Excel도표, 워드문서작성, 전화응대, 영업관리, 거래처관리

주식회사 [블루]
 유 [블루] 별리 1차 물티슈 및 마스크팩 제조 및 포장 인원모집. 11/26~12/26(수) ☆ **즉시지원**
 경력무관 학력무관 계약직 3,400~3,600 경기 평택시
 생활용품, 제조가공, 생산, 조립, 포장코팅, 제약

주식회사 [블루]
 FPCB 제조업 / 통근가능 / 제전복/잔업특근가능 채용모집. 11/26~12/26(수) ☆ **즉시지원**
 경력무관 학력무관 계약직 2,400~2,600 경기 평택시
 PCR, 조립, 포장코팅, 검사검품, 바이오, 제약

<그림 11> 복합형 위장도급 A기업 사례

- 하○은 파견업체가 아님. 그런데 위 구인광고를 보면, 이 기업이 매우 많은 분야의 생산 업무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반도체 장비도 만들고, 산업용 공조기도 만들고, 전

기차 배터리 커버, 핸드폰, 가정용히터, FPCB에 심지어는 멀티슈까지 만들고 있음.

- 만일 이 모든 것이 도급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기업은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고, 공조기도 생산하고, 배터리 커버도 생산하며, 핸드폰은 일부 생산 공정에 관여하고, 가정용히터도 만들고, FPCB에 멀티슈까지, 그리고 가끔 과외 업무로 아웃소싱 TM도 하는 기업임. 이는 웬만한 대기업도 업무를 못 내는 생산관리 역량임.

| 채용정보 총 10건 | 정확도순 | 30개씩 보기 |
|--------------------------------------------------------------------------------------------------------------------------------------------------------------------------------------------------------------------------|------|---------|
| <p>노후테크 [월250만] 반도체부품생산 품질(인.출고) 검사, 생산, 디스플레이생산, 설비OP, 세정, 입고, 입고, 정제, 합성, 전자, 상품인출고, 품질, 생산직, 제조, 디스플레이, 반도체 정규직 · 협력유관 · 경기, 충남 외 · ~12/4(화)</p> | | |
| <p>노후테크 [월330만] LCD필름 검사원 모집 검사, LCD시트, LCD 공학필름, LCD시트검사, 전자, 디스플레이, LCD, 생산, 생산직, 제조, 생산직 정규직 · 협력유관 · 경기, 충남 외 · ~12/4(화)</p> | | |
| <p>노후테크 [월330만] LCD시트생산 검사 검사, LCD시트검사, LCD생산, 디스플레이, 정밀공학, LCD, 품질검사, 생산직, 제조 정규직 · 협력유관 · 경기, 충남 외 · ~12/4(화)</p> | | |
| <p>노후테크 [주5일/월350만] 반도체 중간재료생산 설비OP, 세정, 유기화합물, 정제, 합성, 무기화합물, 디스플레이 중간재료, 유기유기화합물, 디스플레이, 발광다이오드, 정밀공학, 생산... 정규직 · 협력유관 · 경기, 충남 외 · ~12/4(화)</p> | | |
| <p>노후테크 [주5일/월230만] 반도체장비 품질보증CS 반도체장비, CS, 품질, 품질검사, 품질보증, ISO, QA, 생산직 정규직 · 협력유관 · 세종, 충남 외 · ~12/4(화)</p> | | |
| <p>노후테크 [주간/월250만] 반도체장비부품 구매 자재, 구매, 반도체장비, 자재구매, 생산, 자재관리, 생산직, 제조, 생산직 정규직 · 협력유관 · 세종, 충남 외 · ~12/4(화)</p> | | |
| <p>노후테크 [주5일/월250만] 반도체장비 부품구매 구매, 반도체, 반도체장비, 구매관리, 자재관리, 자재구매, 자재구매기획, 자재통합, 제조 정규직 · 협력유관 · 세종, 충남 외 · ~12/4(화)</p> | | |
| <p>노후테크 [월280만] 3톤지게차 운반 적재 운반, 적재, 지게차, 전자, 지게차운전 정규직 · 협력유관 · 경기, 충남 외 · ~12/4(화)</p> | | |
| <p>노후테크 [월350만] 콘크리트 제품제조 제조, 석유화학, 유기화합, 화공, 화학, 생산, 기계, 생산직, 설비, 운전, 제조, 생산직 정규직 · 협력유관 · 경기, 충남 외 · ~12/4(화)</p> | | |
| <p>노후테크 [주5일/월240만] 대형면허 화물운송 생활용품, 소비재, 납품, 배송, 화물차운전, 운전기사 정규직 · 협력유관 · 세종, 충남 외 · ~12/4(화)</p> | | |

<그림 12> 복합형 위장도급 B기업 사례

- 노○○크 역시 허가된 파견업체가 아님. 그런데 이 기업 역시, 위 구인광고상의 업무를 모두 도급받은 것이라 주장한다면, 하○ 동일한 수준의 생산관리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야 함. 반도체 부품을 하도급 생산하고, LCD 필름과 시트도 만들고, 반도체 중간재료도 생산하고, 반도체 장비 부품을 관리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콘크리트 제품까지 ‘도급’ 받아서 제조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관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
- 충남에는 이런 도급 전문 제조업 기업을 79개나 있다는 의미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노릇임. 위장도급업체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허가된 파견업체의 위장도급

- 충남에는 허가된 파견업체의 절대 수가 부족, 그러다 보니, 인력공급에 노하우가 있는 외곽의 파견업체들이 여기서 ‘도급’을 수행하려 음.
- 이번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등록된 파견업체의 위장도급 의심사례를 보면 천안보령보다 서울 수도권에 소재한 파견회사들이 더 많이 관여되어 있음.

| 천안보령지청 | 그외 |
|-------------------------------------------------------|-----------------------------------------------------------------------------------------------------------|
| 위○잡 [천안] 동○에○알 [천안] 굿○닝 아○소싱 [천안] 시○시○템 [천안] | 맨○워○리아 [서울강남] 한○스○스 [서울남부] * 지○원 [서울남부] 삼○에○에스, [서울관악] 제○케○솔루션 [부천] 엔○이○테크 [평택] 성○ [울산] |

○ 등록된 파견업체 B 사례

| |
|-----------------------------------------------------------------------------------------------------------------------------------------------------------------------|
| <p>○○스텝스 - 천*식품 녹취 中</p> <p>- ○○스텝스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 네.</p> <p>- 그러면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스텝스 정규직을 말하는 거예요? = 아뇨, 그 회사 정규직이요.</p> |
|-----------------------------------------------------------------------------------------------------------------------------------------------------------------------|

- 그 회사? 그 회사가 어디인데요?

= 천*식품. 00에 있는 것.

- 00스텝스에서 3-6개월 근무하고 나서, 천*식품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 네.

- 00스텝스는 오랜 기간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파견‘도급’으로 잔뼈가 굵은 회사. 서울남부지청에서 파견업을 허가받은 00스텝스는 2018년 9월 12일, 독산동에 소재한 스마트폰 제조업체 ##프리티전에 ‘도급’을 하다, 불법파견 차별시정 진정으로 다투다 차별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음(2017구합87074).

- 최근 00스텝스는 00프리티전 파견과 유사한 형태로 다른 사업장에서도 위장도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구직자의 녹취록을 보면 00스텝스는 천0식품에서 3~6개월 파견직(00 소속)으로 일하다 천0식품의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음.

| 원청 (소재지) | 임금 | 상여금 유무 | 직무 | 정규직 전환 |
|--------------------|--------------|-------------------|---------------------------|---------------------|
| 이*트 (인천) | 시급 7,660 | | 생산 및 단순포장 | |
| 에스*이*미칼 (충남) | | | 단순프레스 사출 | |
| 모름 (청주) | 일급 88,000 | | 물티슈 생산 | |
| 캠*필*코*아 (경기 연천) | | | 제품포장 및 세제 충전 | 파견직 → 정규직 |
| 모름 (충북 진천) | | | 면 생산 | |
| 오* (경기 포천) | 일급 12,000 | | 식품회사 생산팀 생산보조 | 파견·아웃소싱 |
| 천*식품 (인천) | 시급 7,530 | 150% 월할 지급 | 새우볶음밥 포장 | |
| 씨*투*성진 (경기 이천) | 시급 | 100% | 마스크 생산 | ○○스텝스 정규직 |
| 코*스 (경기 화성) | 일급 80,000 | | 플라스틱 용기, 상차 | 파견직 → 정규직 |
| 이*에스 (충남 예산) | | | 믹스커피 생산, 포장 | ○○스텝스 정규직 |
| 글*텍 (서울) | 시급 7,530 | | 광학필름 생산 제조 포장 | ○○스텝스 정규직 |
| 모름 (전북 군산) | 시급 8,000 | 200% | 떡, 양갱, 식품류 선별 포장 | |
| 모름 (전북 김제) | | | 만두류 생산 및 포장 | |
| 천*식품 (충남 홍성) | 시급 | 150% | 우동 포장 | 파견직 → 정규직 |
| 녹* (충남 예산) | 시급 7,530 | 생산수당 248,000 원 | pvc 바닥장판 생산 및 포장 | ○○ 계약직 → ○○ 정 규직 |
| 세*닉스 (경기 동두천) | 시급 | 200% | 카메라 렌즈 생산 (포장, 조립, 검사) | 파견직 → 정규직 |
| 흥*장 (경기 파주) | 시급 7,800 | | | |
| 모름 (충북 진천) | 일급 94,000 | | | |
| 오* (경기 포천) | 일급 10,000 | | 생산보조 | |

<표 16> 등록파견업체 B의 위장도급 의심사례와 구인조건

- 뿐만 아니라 <표 17>에서 보는 것처럼, ○○스텝스는 10월 한 달 동안에만 19개의 서로 다른 업종과 직종에서, 다른 공정에서 ‘도급’을 하고 있음. 서울, 인천, 경기권은 물론, 충남, 충북, 전북까지 6개 광역시도를 넘나들며, 믹스커피, 면, 식자재 등 다양한 식품의 제조 및 포장 공정에서부터, 카메라 렌즈, PVC 바닥재, 광학필름에서부터 마스크, 플라스틱 사출까지 업종과 직종을 안 가리고 ‘도급’을 하고 있음.
- 그런데 ‘도급’하는 업무마다 임금수준이 다르고, 도급하는 업체마다 임금수준과 임금보상 체계가 다름. 유사한 직무를 하는 경우에도 시급이 다른가하면 (이*트 생산 및 단순 포장

은 7,660원, 글*텍 제조 및 포장은 7,530원), 상여금 수준도 각 ‘도급’마다 100% ~ 200%로 다양하고(천*식품은 150%, 씨*투*성진은 100%, 세*닉스는 200%), 상여금 지급형태도 다름(천*식품은 월할 지급, 녹*는 생산수당 24.8만원 지급).

- 정규직으로의 전환과정도 원청에 따라 다른데, 캠*필*코*아, 천*식품, 세*닉스에서는 파견직으로 일하다 원청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씨*투*성진과 이*에스, 글*텍에서는 ‘도급’업체 정규직에 그침.
- 이상의 정황들은 ○○스텝스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실제로 가지고 있거나 한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 원청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 더구나 자본금이 2억밖에 안 되는 파견 전문회사가, 상호 관련성도 없는 다양한 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도급’을 할 수 있는 자체 작업설비나 전문기술을 갖추고 있을지, 그것부터 의문임.

6. 중층화된 노동시간과 정규직화

1) 중층화되어 있는 파견노동시장

중층화된 노동시장의 특성

- 1998년 직업안정법 개악으로 파견이 근로자공급사업의 예외로 지정됨으로써(파견법 제정), 노동력 중개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로 직업안정기관(공공)과 직업소개사업자(민간) 말고도 파견사업주가 추가됨.
- 이에 따라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의 노동력 양도과정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게 됨. ‘구직자 ↔ (소개자) ↔ 사용자’이라는 단순한 노동력 양도과정이 ‘구직자 ↔ (소개자) ↔ 구인자(파견) ↔ 사용자 ↔ (원청사용자)’라는 다단계를 거쳐 노동력이 양도되는 과정으로 변모한 것.
- 그 양상을 아래처럼 7가지 경우로 나누어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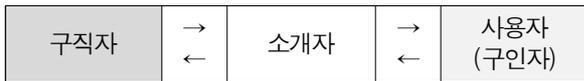
1) 단면적인 고용관계(직접고용)의 중층화

① 직접고용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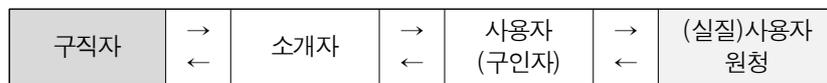
- 사업주가 직접 구인자가 되어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

② 직업소개, 직접고용 (소개·직접)



- 사업주가 직업소개자를 매개로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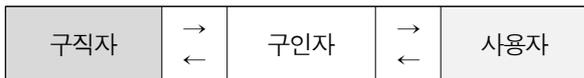
③ 직업소개, 직접고용 그리고 하도급 (소개·직접·도급)



- 경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사업주가 사업주(사용자)에게 사업의 일정 부분을 외주화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직업소개자를 매개로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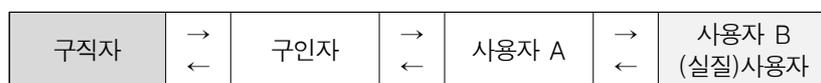
2) 다면적인 고용관계(간접고용)의 중층화

④ 파견 or 위장도급 (간접)



- 사업주가 파견사업자(혹은 도급업자)를 구인자로 내세워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맺게 한 형태

⑤ 파견과 위장도급, 이중파견 (/이중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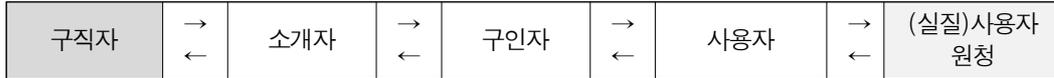
- 경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사업주가 (도급)사업주를 내세워 모집 및 인사 관리 일부를 맡겼는데, (도급)사업주가 다시 파견사업자를 구인자로 내세워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맺게 한 형태. (도급)사업주와 원청사업주의 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로 드러나면 그 실체는 이중파견과 동일.

⑥ 직업소개, 파견 or 위장도급



- 사업주가 파견사업자(혹은 도급업자)를 구인자로 내세웠는데, 직업소개자를 매개로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형태

⑦ 직업소개, 파견고용·도급 그리고 실질사용주 (소개·파견·도급)



- 경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사업주가 사업주(사용자)에게 사업의 일정 부분을 외주화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파견사업자(혹은 도급업자)를 구인자로 내세웠는데, 직업소개자를 매개로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형태

2) 증충화되고 있는 총남 노동시장

- 단면적 근로관계가 증충화된 형태로서 ① 직접고용 ② 소개 및 직접고용 ③ 소개 및 도급업체로의 직접고용을 구분하고, 다면적 근로관계의 증충화된 형태로서 ④ 간접고용 ⑤ 이중파견 (혹은 위장도급업체로의 파견) ⑥ 소개 및 간접고용 ⑦ 소개 및 도급업체로의 파견으로 나뉘, 각 구인광고를 유형화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 총남 | | 안산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단면근로계약 | 17 | 11.4% | 55 | 40.4% |
| 직접 | 3 | 2.0% | 14 | 10.3% |
| 소개·직접 | 14 | 9.4% | 41 | 30.1% |
| 소개·직접·도급 | | | | |
| 다면근로계약 | 132 | 88.6% | 81 | 59.6% |
| 간접 | 108 | 72.5% | 25 | 18.4% |
| 파견·도급 | 4 | 2.7% | 23 | 16.9% |
| 소개·간접 | 20 | 13.4% | 33 | 24.3% |
| 소개·파견·도급 | | | | |
| 총합계 | 149 | 100.0% | 136 | 100.0% |

<표 17> 증충화된 근로계약 형태와 비중

- 이번 조사만 놓고 보면 안산에 비해 충남의 파견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것처럼 보임. ⑤ 파견도급, ⑥ 소개간접와 같은 유형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나타났기 때문. 다면적 근로계약 비중은 88.6%로 안산(59.6%)보다 높지만, '④ 간접' 유형이 많은 것.
- 하지만 이는 안산의 노동시장의 중층적 양상이 심각한 것이지 충남의 노동시장이 괜찮다는 의미가 결코 아님. 직업소개소는 직접고용(9.4%)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13.4%)에도 관여함으로써 노동력 중개과정에서 단계를 하나 더 만들었고 중간착취를 더욱 심화시킨 것. 더 큰 문제는 111개나 되는 간접고용을 제대로 조사할 경우, 어떤 형태가 어떤 비율로 나타날지 예상할 수가 없음.4)
- 한편 이중파견의 쟁점을 가지고 있는 ⑤ '파견도급' 사례가 충남에서도 4건이나 확인됨. 모두 철강업 사례인데, A철강회사 후판 공정에서 도급을 하고 있는 B (자회사 혹은 하청회사)회사로 C 라는 파견업체가 파견을 보내는 형태의 노동시장이 충남에서도 있는 것. 철강산업에서 이 같은 이중삼중의 파견도급구조는 노동권이라는 쟁점을 완전히 희석시키는 것.

3) 충남에서 정규직화의 의미

| | 충남 | | 안산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파견→정규직 | 29 | 65.2% | 20 | 22.1% |
| 파견→계약→정규 | 3 | 7.2% | 1 | 1.1% |
| 파견→도급상용 | 5 | 11.8% | 22 | 24.3% |
| 도급(계약→상용) | 2 | 4.6% | 19 | 20.2% |
| 계약→정규 | 5 | 11.3% | 28 | 32.4% |
| 소계 | 44 | 100.0% | 90 | 100.0% |

<표 18> 정규직화 유형과 비중

- 이번 조사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파악된 사례는 44개임.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구인광고 사례가 2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파견직에서 하도급업체의 상용직으로 전환 시켜주는 걸 '정규직화'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5건(11.8%)이나 되고, 파견직에서 계약직, 계약직에서 정규직이라는 기나긴 여정을 거쳐야

4) 다면적 근로계약이 매우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전화 조사가 훨씬 밀도 있게 진행되어 서임. 누구와 근로계약을 맺었냐? 어디 소속으로 일하다 어디 소속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정규직화할 수 있냐? 최종적으로 진짜 원청의 정규직이 될 수 있냐? 소사장제가 있냐? 등등을 물어 각급의 층위를 구분하려 했기 때문.

하는 경우도 3건(7.2%) 발견됨.

- 정규직 전환 종류와 분포는 근로계약 형태의 종류와 분포를 따라감. 안산의 정규직화 과정이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띄는 건 이 때문.

| | 충남 | | 안산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상여금 | 5 | 13.8% | 49 | 64.9% |
| 임금 | 1 | 2.8% | 20 | 25.1% |
| 수습 끝 | 16 | 41.4% | | 0.0% |
| 복리후생 | | 0.0% | 1 | 1.0% |
| 기타 | 16 | 41.9% | 6 | 8.9% |
| 소계 | 38 | 100.0% | 76 | 100.0% |

<표 19> 정규직화 이후 처우개선 형태와 비중

- 충남지역에서 정규직화의 의미가 무언지를 따지려면 정규직 이후 처우개선 약속을 구인과 정에서 어떻게 제시했는지를 분석해 보아야 함.
- 정규직 전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처우개선 사항은 ‘수습을 끝내는 것임. 표 본 비중이 적어 실제 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만, 조사사례 중 과 번에 가까운 사례가 있다는 건(42.1%) 특기할 만한 것임.
- 2017년에도 지적했듯이 실제로 충남에서 파견직이나 계약직을 사용하는 것이, 정규직 채용 이전에 수습형태로 활용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함을 보여주고 있음. 수습형 파견, 수습형 기간제 형태로 파견제와 기간제가 활용되고 있는 것.

7. 직업소개소, 파견업체들의 노동법 무시

| | 성차별 | | 나이차별 | | 파견차별 | | 4대보험갈취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충남 | 50 | 45.5% | 53 | 67.9% | 39 | 29.5% | 25 | 37.9% |
| 안산 | 45 | 33.1% | 109 | 80.1% | 62 | 76.5% | 13 | 12.7% |

<표 20> 성차별, 나이차별, 파견차별, 4대보험 갈취 비율

1) 고용차별 : 성차별, 연령차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고용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에 따라, 연령을 이유로 성별을 이유로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은 금지되어 있음.
-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에서 노골적으로 성별, 연령별 구인차별을 명시한 구인광고가 많이 발견됨. 특히 연령 차별은 매우 심각한데, 특정 연령(40) 이상은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수준.

| 02 근무조건 | | |
|--------------------------------------------------------------------------------------------------------------------------------------------------------------------------------|---------------------------------------------------------------------------------------------------------------------|------------------------------------------|
| 모집부문 | 근무조건 | |
| 생산직 주간 2교대 [남,여] | - 소스류 생산 보조 및 포장 - 치킨류, 너겟,패티등 원료 투입 및 OP,포장 * 교대근무 08:30~17:30 / 17:30~02:00분 잔업별도 * 생산물량에 따라 12시간 맞교대 운영 | |
| 피클류 생산 및 포장 [남] | - 오이피클류 생산 및 포장 / 분말 생산 및 포장 * [주간고정] - 08:30~17:30 / 잔업시 20:30(2.5시간내외) * 생산 물량에 따라 시간변동 | |
| 야간근무 고정 [남] | - 육가공류 생산 및 포장 * [야간고정] - 17:00~02:00 / 잔업별도 * 차후 00시부터 08:30으로 근무시간 변동 가능성 있음 | |
| * 생산 물량에 따라 12시간 맞교대 및 3교대 운영 * 자차 출퇴근 가능자 우대 - 주5일 사업장 / 토요일 근무시 특근 / 일요일 휴무 - 기숙사 가능(남) 숙소비 무료 / 공과금 50%만 부담 / 인근거주자 통근버스 이용 가능 - 근무지 : 아산시 둔포면 인근 [둔포 퍼스트빌리지부근] | | |
| 03 급여사항 | | |
| 교대근무-남 | 주간근무-남 | 교대근무-여 |
| - 잔업시 8,548원 * 1.5배 = 시간당 12,822원 | - 잔업시 8,548원 * 1.5배 = 시간당 12,822원 | - 잔업시 7,618원 * 1.5배 = 시간당 11,427원 |
| 월평균 250~280만 이상 가능 | 월평균 250~280만 이상 가능 | 월평균 200~240만가능 |
| * 6개월후 정규직 전환 | * 6개월후 정규직 전환 | * 6개월후 정규직 전환 |
| - 상여포함시급(9,000원이상) 및 만근수당(25만원) 대폭 인상 | - 상여포함시급(9,000원이상) 및 만근수당(25만원) 대폭 인상 | - 상여포함시급(8,000원이상) 및 만근수당(25만원) 대폭 인상 |
| - 5개부문 각50%씩 달성 부문에 따른 성과급 지급 | | |

<그림 13> 파견업체의 고용차별, 임금차별 사례 (충남)

· 성별로는 직무에 대한 차별 뿐만 아니라 임금 자체를 달리하는 차별도 매우 많아. 충남노동시장은 어느 공단보다 성차별이 심각한 게, 구인광고 상에 노골적으로 적시하면서 여성의 저임금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

| | |
|----------------|-----------------------------------------------------------|
| 14. 휴대폰필름 기계조립 | |
| ■ 근무지 : | 충남아산 테크노벨리 내 |
| ■ 담당업무 : | 휴대폰필름 기계조립, 단순보조 업무 |
| ■ 모집구분 : | 남녀 45세미만 교포(F4비자) 동반입사가능 |
| ■ 근무형태 : | 주간고정 |
| ■ 근무시간 : | 08:30~17:30 (잔업시 20:30) |
| ■ 평균급여 : | 남: 시급 7,530원+상여400% 평균 240~260만원 |
| | 여: 시급 7,530원+상여300% 평균 230~250만원 |
| ■ 통근 : | 없음 |
| ■ 기숙사 : | 기숙사(3인1실>13+공과금 / 4인1실>10+공과금) 기숙사 근 무지 걸어서 5분 거리 |
| ■ 근무복 : | 방진복착용가능자 |

<그림 14> 직업소개소의 임금 차별 사례(충남)

| | N | 성차별 | | 나이차별 | | 파견차별 | | 4대보험갈취 |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파견업체 구인 | 112 | 39 | 46.4% | 36 | 63.2% | 32 | 28.6% | 19 | 23.2% |
| 직업소개소 구인 | 34 | 10 | 41.7% | 16 | 84.2% | 7 | 35.0% | 5 | 19.2% |
| 총합계 | 149 | 50 | 45.5% | 53 | 67.9% | 39 | 29.5% | 25 | 22.7% |

<표 21> 구인업체별 성차별, 나이차별, 파견차별, 4대보험 갈취 비율

- 충남 노동시장에서 노골적으로 고용차별을 하는 구인광고 비중이 높은 건, 파견업체보다 직업소개소. 이들이 제시한 구인광고 중 84.2%가 나이 제한을 두고 있었음.

2) 4대 보험 갈취

- 반대로 4대 보험을 중간에 가로채는 비율은 파견업체에게서 훨씬 높게 나타남. 23.2%나 됨. 대부분 '원하면 들어준다.'는 케이스였는데, 웬만하면 가입하지 말라는 종용.

과건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과건업체가 노동자를 공급하고 받는 관리비(수수료)는 과건노동자 임금의 4~12%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주간노동만 할 경우 월 150만원, 주·야간 같이 할 경우 월 200만원 수준인 생산직 과건노동자의 임금을 고려하면, 과건노동자 1명당 6만~25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챙기는 셈이다. 과건업체 매출과 수익은 과건보내는 노동자 숫자에 비례하게 된다.

과건업체는 공식적인 관리비 외에 불법적으로 챙기는 수익도 많다. 인천지역 과건업체에서 관리직원으로 4년째 일하고 있는 김인성(가명)씨는 전체 매출액 가운데 ‘4대보험 비용’에서 빼돌리는 돈이 관리비보다 크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용업체(과건노동자를 데려다 쓰는 업체)에서 과건업체 쪽에 과건노동자 월급과 함께 4대보험 비용도 함께 제공하는데, 이 돈으로 실제 4대보험을 가입시키는 경우는 드물다”며 “생산직 노동자들의 4대보험 비용이 한달에 13만원 정도 되는데, 그건 거의 과건업체가 가져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푼이 아쉬운 과건노동자들한테 ‘4대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떼어줄 테니, 가입 않는 게 어떠냐고 회유해 미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는 “이 밖에도 시급·수당 떼어먹기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과건노동자 몫의 임금을 털어낸다”며 “지금 근무하는 과건업체는 300~500명 정도 과건노동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관리비와 4대보험비 등을 합쳐 월 매출이 2억~3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 2016.3.7. 「과건업체 우후죽순... ‘사람 장사’는 불황 없다

- 위 기사에서 보듯 ‘4대보험 갈취’는 과건업체의 가장 큰 수익원 중 하나. 한 푼이 아쉬운 노동자에게 ‘필요하면 안 들어준다’고 선심을 쓰면서 과건사용사업주로부터는 4대 보험료를 받아 중간에 착복하는 것.
-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직업소개소와 달리 과건업체는 소개알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종료될 까지 제반의 관리비용을 받기 때문. 기업의 노동력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에 개입해 수익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직업소개소보다 훨씬 많은 중간착취를 해낼 수 있는 것.

8. 노동조건 : 무허가 위장도급, 저임금 장시간 노동

| | 빈도 | 시간당임금 | 한달예상소득 | 한달소득_수당제외 | 예상노동시간 |
|----|-----|-------|-----------|-----------|--------|
| 총남 | 149 | 8,352 | 2,705,193 | 2,614,891 | 55.3 |
| 안산 | 136 | 7,878 | 2,783,655 | 2,647,548 | 60.4 |

<표 23> 총남 구인시장의 노동조건

- 구인광고에서 제시된 노동조건을 취합해, 구직자의 예상되는 시간당 임금과 일하게 될 노동시간을 계산해 봄.
- ① 시급은 물론 일급과 월급을 모두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임금이 산출됨. 또 ② 구인광고에 제시된 한 달 임금(예상소득)을 실수령액으로 간주하고, 여기서 상여금, 각종 수당을 빼서 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계산하고 ③ 시간당 임금에 한 달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기본급을 산출한 뒤 ④ 수당 제외 한달 소득에서 기본급을 빼면 월평균 연장근로수당을 알 수 있고 ⑤ 이 수당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추정해 소정근로시간을 더하면 표 23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총남 구인노동시장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8,352원, 노동시간은 55.3시간으로 나타남. 제시된 임금은 최저임금을 조금 웃돌고, 제시된 노동시간은 연장근로 상한 시간을 3.3시간이나 초과하는 수준이었음.

| | 빈도 | 시간당임금 | 한달예상소득 | 한달소득_수당제외 | 예상노동시간 |
|------------|------------|--------------|------------------|------------------|-------------|
| 파견업체 구인 | 112 | 8,482 | 2,694,411 | 2,629,297 | 54.8 |
| 직업소개소 구인 | 34 | 8,033 | 2,737,586 | 2,572,947 | 56.4 |
| 총합계 | 149 | 8,352 | 2,705,193 | 2,614,891 | 55.3 |

<표 24> 구인업체별 노동조건

- 파견업체보다는 직업소개소의 구인조건이 열악한 수준. 시간당 임금은 평균 8,033원 수준이었고, 274만원을 벌려면 56.4시간을 일해야 하는 일자리를 제시하고 있었던 것. 파견업체의 구인조건도 열악하긴 마찬가지였는데, 시간당 임금 8,482원에 54.8시간을 일해야 269만원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제시하고 있음.
- 무허가 위장도급 업체들이, 유료직업소개소들이, 저임금 초장시간 일자리를, 표준적인 노동시장인 양 일반화시켜놓은 것.⁵⁾

| 상여금 | 2017 | 2018 |
|--------|-------|-------|
| | 비중 | 비중 |
| ~250% | 31.1% | 46.5% |
| 300% | 44.4% | 30.3% |
| 400% | 13.3% | 23.3% |
| 500~ % | 11.1% | 0.0 |

<표 25> 구인노동시장에서 확인된 2017년과 2018년 상여금의 변화

- 2017년 실태조사 당시 상여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 직업정보 중 44.4%는 상여금 300%였음. 하지만 2018년 현재, 상여금 지급 비중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급액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 된 것. 500% 이상 지급하겠다고 한 일자리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400%선의 일자리가 전부였음. 300%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일자리는 14.1%포인트 줄어들었고, 대신 250%이하로 상여금을 주겠다는 일자리는 15.4%가 늘어남. 상여금 지급액이 하향 평준화 된 것.
- 이상의 구인노동시장 노동조건을 업종별, 직종별로 보면 아래 표와 같음.

| | 빈도 | 시간당임금 | 한달예상소득 | 한달소득_수당제외 | 예상노동시간 |
|--------|-----|--------|-----------|-----------|--------|
| 제조업 | 143 | 8,390 | 2,707,846 | 2,628,694 | 55.4 |
| 자동차 부품 | 42 | 8,145 | 2,814,611 | 2,685,649 | 57.5 |
| 전기·전자 | 37 | 8,053 | 2,709,425 | 2,614,258 | 56.8 |
| 석유화학 | 24 | 7,955 | 2,710,667 | 2,667,322 | 58.7 |
| 기계·철강 | 18 | 10,496 | 2,679,286 | 2,652,119 | 46.1 |
| 식품·제조 | 11 | 8,139 | 2,466,000 | 2,377,158 | 54.7 |
| 기타제조 | 9 | 9,729 | 2,477,778 | 2,477,778 | 40.0 |
| 목재·종이 | 1 | | 2,750,000 | 2,680,000 | |
| 섬유·의복 | 1 | 8,852 | 2,350,000 | 2,350,000 | 48.7 |
| 비제조 | 6 | 7,584 | 2,658,333 | 2,371,045 | 54.8 |
| 운수·도소매 | 6 | 7,584 | 2,658,333 | 2,371,045 | 54.8 |
| 총합계 | 149 | 8,352 | 2,705,193 | 2,614,891 | 55.3 |

<표 26> 업종별 구인노동시장 노동조건

5) 참고로 안산의 시간당 임금은 참혹한 수준. 시간당 임금(7,878원)은 그야말로 최저임금 수준이고, 예상 노동시간(60.4시간)은 주 60시간을 초과.

| | 빈도 | 시간당임금 | 한달예상소득 | 한달소득_수당제외 | 예상노동시간 |
|-----|-----|-------|-----------|-----------|--------|
| 사무직 | 5 | 9,528 | 2,480,000 | 2,480,000 | 48.0 |
| 생산직 | 144 | 8,319 | 2,715,717 | 2,621,195 | 55.6 |
| 총합계 | 149 | 8,352 | 2,705,193 | 2,614,891 | 55.3 |

<표 27> 직종별 구인노동시장 노동조건

9. [소결] 직업안정기관의 위상과 역할 제고하고 무허가 파견업체들의 난립 억제방안을 다양하게 세워야

1) 직업소개소의 일탈, 무허가 위장도급업체의 난립 규제해야

- 충남은 다른 어느 곳보다 도급을 빙자한 무허가, 미등록 업체의 근로자공급사업이 활성화 된 공단. 1차 밴더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위치한 중심부 산업단지이면서도 노동력 구인시장의 조건은 다른 공단에 비해 좋다고 평가할 수 없는 상태. 공단노동시장의 하향평준화를 부추기고 있는 건, 도급을 빙자한 무허가, 미등록업체의 근로자 공급사업들임.
- 여기에 등록된 직업소개소의 일탈까지 심각한 수준. 직업소개소의 일자리 정보가 가장 불투명하고, 고용차별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제시된 근로조건도 가장 열악한 일자리였던 것.
- 무허가 위장도급업체들을 규제하려면 두 가지 접근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는 공공 직업안정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또 하나는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수밖에 없음.
- 아산일자리지원센터 등 공공 직업정보제공기관들이 노동력 중개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이들 민간고용서비스업자들의 난립을 제어할 수가 없음. 구인구직시장의 공공성은 부재하고 직업소개소의 일탈을 규율하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오로지 (半)실업자의 몫이 되고 말 것임.

2) (공공) 직업안정기관 역할 제고해야.

고용노동부, 2018.11.16.(금), 『경향신문.연합뉴스'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 제조업 구인 광고'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알바몬.사람인.잡코리아.알바천국 등 유명 온라인 직업정보서비스업체에 올라온 공단 제조업 구인광고 절반이 구인업체와 사용업체가 다른 파견.도급으로 파악됐다.

* 지난 10월 한 달간 온라인 직업정보서비스업체에 올라온 서울 구로.금천, 안산 반월.시화, 인천 부평.남동, 천안 아산.단진 지역 제조업 일자리 광고 633건 분석결과 발표 (10.15) 민주노총은 “사업체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구직자들은 어디서 일하는지도 모른 채 면접을 보러 가고 이는 근로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간 직업정보 제공기관의 규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설명내용> 정부는 민간 직업정보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의 명확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취업형태(고용.파견.도급.용역 등)를 구분하여 게재할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부과 예정 다만, 법령 개정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직업정보제공기관을 상대로 "구인정보 게재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하겠음 아울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업정보제공사업체,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있는 바, 향후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감독대상 선정 시 고려하고 제조업체 구인광고 모니터링 관련 착안사항을 보충.시달하여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지난 11월 15일 민주노총이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의 불법파견.위장도급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다음날, 고용노동부는 직업정보에 대한 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만들어 구인정보를 명확히 게재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바 있음. 또 그전까지는 구인정보 게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겠다고도 하였음.
- 구인 정보를 명확히 해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까지 확대하려 하는 시점에 지자체의 (공공) 직업안정기관부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임. 당진, 아산, 천안 일자리센터부터 이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고, 지자체는 기업들이 공공직업정보제공기관을 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유도해야 할 것임.
- 2017년 구인광고 실태조사 할 때에도 사업체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비율이 최종적으로 41.6%였음. 2018년에는 54.4%를 더 높아졌음. 이 수치부터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어떤 취업형태의 일자리인지, 어떤 고용관계인지, 누가 실질 사용업체인지, 이 정보만 분명해도 직업을 선택하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

은 상당히 줄일 수 있음.

3) 불법파견에 대한 단속과 규제 다양하게 접근해야.

- 파견노동시장의 주요 행위자로서 사용사업주 뿐만 아니라 공급자인 파견업체도 점점 대형화되고 있음. 이들을 단속하려면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다양하게 접근해야 함. 파견이나 도급이나를 구분해 파견법 위반 여부만을 가리려는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님.
- 파견업체들은 도급을 확대시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단기파견시장을 확대 시켰음. 다른 방식으로 불법사실(범죄)으로 인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조사계획을 세워야 함.
- 앞서 입증한 것처럼, 파견업체가 임의 사업체가 복합형 도급을 하고 있다면 해당기업은 위장도급 - 불법 파견을 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음. 이들부터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을 세우고 집행하는 방식이 필요함.
- 동시에 구인노동시장에서 임시간헐적 단기파견을 자주 사용하는 형태로 파견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면 역시 요주의 대상으로 선정해 감시감독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 이런 식으로 불법파견에 대응하는 전술을 다원화해야 함.
- 아울러 파견사업주 대형화된 상황에서 하나의 ‘도급’행위에 대해 불법파견 판단이 서면, 다른 ‘도급’행위에 대해서도 여죄를 다투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그 여죄가 또 다른 여죄를 밝히는 방식으로 불법파견 노동시장의 공급사슬망을 수사하고 다속할 수 있음. 불법파견이 확정된 사용사업주의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사용사업주에 관여한 또다른 파견사업주의 불법파견행위를 조사하고, 파견사업주와 관여된 제3의 파견사용사업주의 불법파견행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불법파견 단속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가 있음.
- 직업소개소 관리 감독은 사각지대. 사실상 등록이 자율화된 수준이기 때문. 직업소개소 관리감독은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이 합동 조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

4) 파견노동자 권리찾기, 사업영역 확대해야

- 임시간헐적 단기파견, 수습형 파견, 수습형 계약직이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 불법 파견에 맞서는 노동자권리찾기사업도 전술을 다양화해야 함.
- ‘6개월 이후 상여금 지급’이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상여금 미지급’ 체불임금 투쟁으로, ‘3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 제안에 대해서는 ‘상시업무 불법파견 근절’ 투쟁으로 전술을 다원화시켜야 함.
- 파견노동자 권리를 위한 전술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만큼 그 노하우를 공유하고 성과를 나누고, 한계를 극복하려는 공동의 토론을 강화해야 함.
- 그렇게 해서 파견노동자 권리 찾기를 통해 노조할 권리를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함.

별첨자료

[별첨자료1] (소지역별) 충남파견노동시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표

[별첨자료2] 충남지역 불법파견실태조사 경과보고

[별첨자료3] 2018 파견노동시장 실태와 문제점

[별첨자료4] (지역별) 파견노동시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표

[별첨자료5] 등록된 파견업체의 위장도급 의심사례

[별첨자료6] 조사표

(소지역별) 충남파견노동시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표

1. 소지역별 조사 현황

1) 직업정보제공기관

| | 충남 | | 천안 | | 아산 | | 당진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민간 | 132 | 88.6% | 79 | 96.3% | 38 | 80.9% | 14 | 73.7% |
| 잡코리아 | 46 | 30.9% | 33 | 40.2% | 9 | 19.1% | 4 | 21.1% |
| 파인드잡 | 23 | 15.4% | 7 | 8.5% | 8 | 17.0% | 7 | 36.8% |
| 사람인 | 21 | 14.1% | 15 | 18.3% | 6 | 12.8% | | 0.0% |
| 기타 | 19 | 12.8% | 15 | 18.3% | 4 | 8.5% | | 0.0% |
| 알바천국 | 15 | 10.1% | 5 | 6.1% | 7 | 14.9% | 3 | 15.8% |
| 알바몬 | 8 | 5.4% | 4 | 4.9% | 4 | 8.5% | | 0.0% |
| 공공 | 17 | 11.4% | 3 | 3.7% | 9 | 19.1% | 5 | 26.3% |
| 워크넷 | 9 | 6.0% | 2 | 2.4% | 7 | 14.9% | | 0.0% |
| 일자리지원센터 | 8 | 5.4% | 1 | 1.2% | 2 | 4.3% | 5 | 26.3% |
| 총합계 | 149 | 100.0% | 82 | 100.0% | 47 | 100.0% | 19 | 100.0% |

2) 구인업체 성격

| | 충남 | | 천안 | | 아산 | | 당진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직접 구인 | 3 | 2.0% | 1 | 1.2% | 1 | 2.1% | 1 | 5.3% |
| 파견업체 구인 | 112 | 75.2% | 61 | 74.4% | 35 | 74.5% | 15 | 78.9% |
| 직업소개소 구인 | 34 | 22.8% | 20 | 24.4% | 11 | 23.4% | 3 | 15.8% |
| 총합계 | 149 | 100.0% | 82 | 100.0% | 47 | 100.0% | 19 | 100.0% |

2.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

1) 업종

| | 충남 | | 천안 | | 아산 | | 당진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제조업 | 143 | 96.0% | 80 | 97.6% | 44 | 93.6% | 18 | 94.7% |
| 자동차·부품 | 42 | 28.2% | 20 | 24.4% | 17 | 36.2% | 5 | 26.3% |
| 전기·전자 | 37 | 24.8% | 26 | 31.7% | 9 | 19.1% | 2 | 10.5% |
| 석유화학 | 24 | 16.1% | 14 | 17.1% | 6 | 12.8% | 3 | 15.8% |
| 기계·철강 | 18 | 12.1% | 7 | 8.5% | 5 | 10.6% | 6 | 31.6% |
| 식품·제조 | 11 | 7.4% | 5 | 6.1% | 6 | 12.8% | | 0.0% |
| 기타제조 | 9 | 6.0% | 6 | 7.3% | 1 | 2.1% | 2 | 10.5% |
| 목재·종이 | 1 | 0.7% | 1 | 1.2% | | 0.0% | | 0.0% |
| 섬유·의복 | 1 | 0.7% | 1 | 1.2% | | 0.0% | | 0.0% |
| 비제조 | 6 | 4.0% | 2 | 2.4% | 3 | 6.4% | 1 | 5.3% |
| 운수·도소매 | 6 | 4.0% | 2 | 2.4% | 3 | 6.4% | 1 | 5.3% |
| 총합계 | 149 | 100.0% | 82 | 100.0% | 47 | 100.0% | 19 | 100.0% |

2) 직종

| | 충남 | | 천안 | | 아산 | | 당진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생산직 | 144 | 96.6% | 79 | 96.3% | 47 | 100.0% | 17 | 89.5% |
| 숙련직 | 8 | 5.4% | 5 | 6.1% | 1 | 2.1% | 2 | 10.5% |
| 반숙련직 | 114 | 76.5% | 62 | 75.6% | 41 | 87.2% | 10 | 52.6% |
| 단순직 | 22 | 14.8% | 12 | 14.6% | 5 | 10.6% | 5 | 26.3% |
| 사무직 | 5 | 3.4% | 3 | 3.7% | | 0.0% | 2 | 10.5% |
| 사무직 | 5 | 3.4% | 3 | 3.7% | | 0.0% | 2 | 10.5% |
| 총합계 | 149 | 100.0% | 82 | 100.0% | 47 | 100.0% | 19 | 100.0% |

3) 사업장 규모

| | 충남 | | 천안 | | 아산 | | 당진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100인 미만 | 32 | 39.5% | 15 | 36.6% | 15 | 44.1% | 2 | 40.0% |
| 100인 이상 | 21 | 25.9% | 13 | 31.7% | 8 | 23.5% | | 0.0% |
| 300인 이상 | 24 | 29.6% | 12 | 29.3% | 8 | 23.5% | 3 | 60.0% |
| 1000인 이상 | 4 | 4.9% | 1 | 2.4% | 3 | 8.8% | | 0.0% |
| 총합계 | 81 | 100.0% | 41 | 100.0% | 34 | 100.0% | 5 | 100.0% |

3. 사업장 위치 확인경로

| 확인경로 | 충남 | | 천안 | | 아산 | | 당진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기본 | 30 | 20.1% | 11 | 13.4% | 15 | 31.9% | 4 | 21.1% |
| 전화 | 38 | 25.5% | 23 | 28.0% | 10 | 21.3% | 4 | 21.1% |
| 방문 | | 0.0% | | | | | | |
| 모름 | 73 | 49.0% | 46 | 56.1% | 16 | 34.0% | 11 | 57.9% |
| 추적 | 8 | 5.4% | 2 | 2.4% | 6 | 12.8% | | 0.0% |
| | 149 | 100.0% | 82 | 100.0% | 47 | 100.0% | 19 | 100.0% |

4. 구인노동시장 노동조건

| | 빈도 | 시간당임금 | 한달예상소득 | 한달소득_수당제외 | 예상노동시간 |
|------------|------------|--------------|------------------|------------------|-------------|
| 천안 | 82 | 8,471 | 2,708,414 | 2,623,348 | 55.7 |
| 아산 | 47 | 7,952 | 2,654,000 | 2,534,457 | 54.8 |
| 당진 | 19 | 9,001 | 2,811,333 | 2,767,618 | 54.5 |
| 총합계 | 149 | 8,352 | 2,705,193 | 2,614,891 | 55.3 |

충남지역 불법파견실태조사 경과보고

충남지역불법파견 실태조사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지역에 위치한 제조업에서 노동자들 채용하는 구인광고를 조사하여 불법파견, 고용평등법위반, 미허가 업체의 파견, 직업소개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 충남지역 불법파견 실태조사에 경과입니다.

1. 준 비

| 시 기 | 내 용 |
|-------------|--------------------------------------------------------------------------------------------------|
| 2018. 3. 20 | ○ 충남지역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위한 기획단 1차 회의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금속노조 법률원,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
| 2018. 4. 4 | ○ 기획단 2차 회의 - 2018년 충남지역불법파견실태조사 계획수립 논의 |
| 2018. 5. 15 | ○ 기획단 3차 회의 - 불법파견 실태조사 계획수립 - 불법파견 119 계획 논의 - 실태조사단 법률 및 사례교육 논의 |
| 2018. 5. 30 | ○ 실태조사단 교육 - 실태조사단 법률 및 사례교육 실시 (금속노조 법률원, 안산지역불법파견 실태조사 사례) |
| 2018. 6. 22 | ○ 불법파견 119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진 구성 |

2. 불법파견 119 운영 및 실태조사

1) 불법파견 119 운영

- 불법파견 상담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
- 2018. 7. 5 : 불법파견 119 출범기자회견(충남도청 프레스센터)
- 2018년 11월말 : 16건 상담, 불법파견 홍보
공단 홍보 진행(현수막, 명함형카드 및 리플렛 배포, 웹자보)

2) 실태조사

① 실태조사

- 실태조사 준비 : 2018. 3월 ~ 7월
- 조사기간 : 2018년 8월 27일 ~ 10월 5일까지.
- 조사방법 :
 - 공공 및 민간부문 고용정보서비스 기관(업체)에서 진행한 제조업 구인 현황 전수조사
 - 사용사업체의 주소지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지역을 중심으로 파견업체 구인현황 조사
 - 구인 정보에 대한 전화 확인조사
 - 직업소개소 등록여부 및 파견업 허가 여부 확인조사

② 자료조사

- 정보공개청구
 - 천안, 보령지청 파견업체 및 사용사업체 명단과 현황
 - 천안, 아산, 당진, 서산지역 직업소개소 등록현황

3. 결 과

1). 구인광고 조사

- ① 제조업 파견(도급)정황 있는 구인광고 조사
 - 549건의 구인광고와 246개 채용업체 선별 작업 진행
 - 246개 채용업체 중에서 등록직업소개소 28개와 허가파견업체 8개 뿐 임을 확인
 - 43개의 '남여고용평등법위반' 확인

- ② 제조업 파견(도급) 정황이 있는 546개 구인정보 제공처별 현황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들이 조장한 파견코리아, 파견천국”

2018 파견노동시장 실태와 문제점

“불법파견 방치하는 민간직업정보서비스업, 전문화되고 기업화되는
불법파견”

박준도 |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1. 개요

○ 조사시기 : 8.20 ~ 10.31

○ 조사대상

- 알바몬, 사람인, 알바천국, 잡코리아, 인크루트, 파인드잡, 교차로 (이상 민간기관) 위크넷, 서울, 천안 등 지역일자리지원센터(이상 공공기관) 구인광고 중 서울 구로금천(이하 서울남부), 안산 반월·시흥(이하 안산), 인천 부평·남동(이하 인천), 충남 천안·아산·당진·서산(이하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구인광고
- 알바몬, 사람인, 알바천국, 잡코리아에서, 등록된 파견업체 (2,388개) 구인광고 전수조사

(2018.10.8.~10.27)

○ 분석대상

- 표본수집 : 301개의 서울남부 구인광고, 156개의 안산 구인광고, 91개의 인천 구인광고, 193개의 충남 구인광고, 864개의 등록된 파견업체 구인광고,
- 분석대상 : 공단지역 구인광고 633건 (서울 255건, 안산 136건, 인천 89건, 충남 153건), 등록파견업체 구인광고 863건

2.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 파견업체들의 천국, 불법의 온상

- 공단표본 : 공공직업정보제공기관(이하 공공기관)80건⁶⁾,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이하 민간기관) 554건.

6) 공공기관의 표본이 적은 것은 파견업체로 의심되는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아, 자료 취합을 중단해서임.

| 공공기관 | 빈도 | 비율 | 민간기관 | 빈도 | 비율 |
|---------|----|--------|------|-----|--------|
| 일자리지원센터 | 41 | 51.3% | 알바몬 | 147 | 26.6% |
| 워크넷 | 39 | 48.8% | 사람인 | 96 | 17.4% |
| 소계 | 80 | 100.0% | 알바천국 | 78 | 14.1% |
| | | | 잡코리아 | 76 | 13.7% |
| | | | 인크루트 | 72 | 13.0% |
| | | | 파인드잡 | 63 | 11.4% |
| | | | 기타 | 21 | 3.8% |
| | | | 소계 | 553 | 100.0% |

1) 공단지역에 만연한 파견 및 위장도급

| | 파견 | 위장도급 | 불법직업소개 |
|----|-------|-------|--------|
| 빈도 | 369 | 317 | 71 |
| 비중 | 58.2% | 50.0% | 1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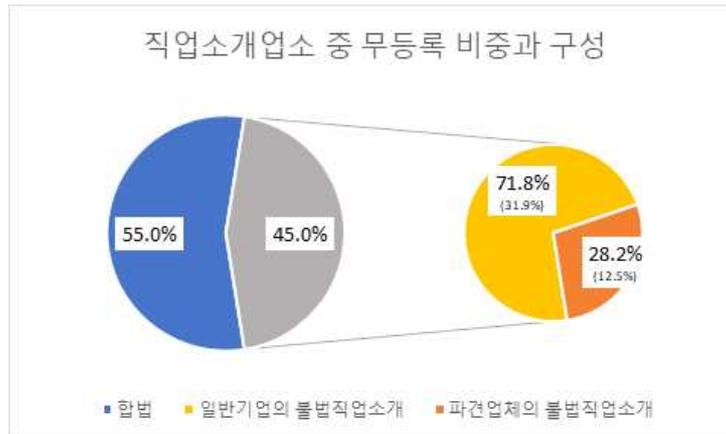
- 직업정보 내용을 조사한 것 중 369건(전체 58.2%)이 구인업체와 노동력 사용업체가 서로 다른, 파견·(위장)도급업체인 것으로 확인됨. 특히 317건(전체 50.0%)이 위장도급으로 의심되었는데,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직종에서, 구인업체가 근로계약은 맺지만 일하는 사업장의 위치는 다른, 노동력을 중개하는 구인광고를 냈기 때문.
- 이와 같은 현상이 공단지역에서 다량으로 발견된 것은, 제조업 생산직은 파견이 허용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직접고용의 관행이 정착되어 있지도 않은, 비전형적인 고용이 만연해서이기 때문임.
- 공단지역임에도 허가된 파견이 8.2%나 관찰된 것은 이번 조사대상에 서울단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서울단지는 IT, 콜센터 등 생산자 서비스업과 물류유통업이 상당히 발달한 곳.⁷⁾

2) 불법 직업소개

- 한편, 이번 조사과정에서, 채용대행 전문업체들이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에서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됨. 채용대행 전문업체란 ‘기업의 채용서비스 전반을 종합적으로 대행하

7) 파견허용 직종에서 미등록 파견업체의 파견구인광고는 3건 만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IT업계에서 이뤄졌음. 소규모 파견도 가능한데다 프리랜서 고용형태가 만연해, 어떤 인허가도 받지않은 업주들이 인력공급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보임. 이런 형태는 운수업에서도 일부 관찰됨. 파견과 개인사업자를 혼용해서 구인광고를 낸 사업주들이 일부 관찰된 것. 하지만 특고를 동시에 모집해, 이번 조사에서는 파견으로 분류하지 않음.

거나 구인신청, 모집, 서류 접수 등 일부 서비스만 대행' 하는 업체를 가리킴. 언뜻 보면 기업의 인사 관련 업무 중 외주화된 일부 업무를 대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노동력을 중개하는 행위로서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것임.



- 이번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직업소개업소의 구인광고 건수는 160건이었음. 이 중 88건(55.0%)만이 합법적인 직업소개업소의 구인광고이고, 나머지 72건(45.0%)은 허가받지 않은 사업체들의 노동력 중개 광고임.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난립하고 있음.
- 무허가 직업소개소의 직업소개 중 등록된 파견업체의 직업소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72건 중 20건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받은 파견업체의 직업소개 였는데, 파견업체들이 직업소개까지 불법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⁸⁾
- 파견과 용역(/도급), 직업소개사업이 경계없이 이뤄질 경우, 노동력 공급시장에서의 공익적 역할이 줄어들어는 물론 파견을 제한하려는 법규제조차 무력하게 만들. 불법파견, 위장도급 논란이 시사하듯 사업주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사용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 들 것이고, 또한 노동력 중개과정에서 이익을 편취하는 사업주들이 늘어나 중국에는 임금까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⁹⁾
- 불법적인 직업소개의 대부분은 노동력 중개과정에 대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업주들이 하고 있는 것. 72건 중 52건이 임의사업자들의 직업소개. 인력공급시장의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임의로 직업소개를 하는 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8) 참고로 160개의 직업소개 건 중 38건(23.8%)은 파견업체의 직업소개 행위다. 파견업체의 직업소개가 상당히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9) 안산에 소재한, 직업소개업과 파견사업 모두 인가받은 한 파견사업주는 구직자에게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중용한다. 첫째, 6개월을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이후 3개월은 사용업체 계약직으로 근무,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옵션, 둘째, 9개월을 사용업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정규직이 되어야 온전한 시급을 받는데, 파견사업의 규제와 직업소개사업의 규제를 모두 회피할 수 있는 이들로 인해 구직자는 9개월간 고용불안과 함께 부당하게 임금차별을 겪게된다.

3) 불법파견, 불법직업소개 대다수가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에서 발견

| | 파견 | | 위장도급 | | 불법소개 | |
|----|-----|--------|------|--------|------|--------|
| | 빈도 | 비중 | 빈도 | 비중 | 빈도 | 비중 |
| 공공 | 19 | 5.1% | 16 | 5.0% | 1 | 1.4% |
| 민간 | 350 | 94.9% | 301 | 95.0% | 70 | 98.6% |
| 계 | 369 | 100.0% | 317 | 100.0% | 71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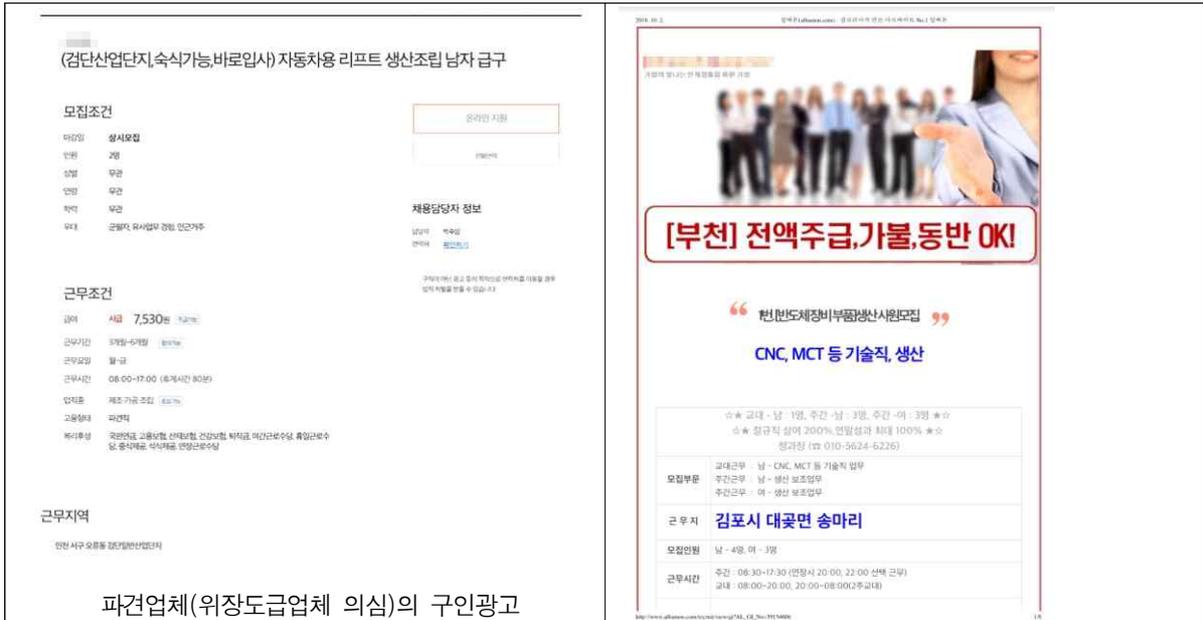
- 위장도급 업체 중 95.0%가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에서 발견됨. 불법적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업체 중에서도 98.6%가 민간기관에서 발견됨.

| | | 파견 | | 위장도급 | | 불법소개 | |
|----|---------|-----|-------|------|-------|------|-------|
| | | 빈도 | 비중 | 빈도 | 비중 | 빈도 | 비중 |
| 민간 | 알바몬 | 116 | 31.4% | 108 | 34.1% | 15 | 21.1% |
| | 사람인 | 51 | 13.8% | 48 | 15.1% | 18 | 25.4% |
| | 잡코리아 | 53 | 14.4% | 45 | 14.2% | 3 | 4.2% |
| | 알바천국 | 47 | 12.7% | 30 | 9.5% | 15 | 21.1% |
| | 파인드잡 | 34 | 9.2% | 28 | 8.8% | 13 | 18.3% |
| | 기타 | 30 | 8.1% | 23 | 7.3% | 5 | 7.0% |
| | 인크루트 | 19 | 5.1% | 19 | 6.0% | 1 | 1.4% |
| 포유 | 워크넷 | 12 | 3.3% | 9 | 2.8% | 1 | 1.4% |
| | 일자리지원센터 | 7 | 1.9% | 7 | 2.2% | | 0.0% |

- 업체별로 살펴보면 알바몬에서 위장도급 의심사례가 34.1%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15.1%가 사람인, 14.2%가 잡코리아, 9.5%가 알바천국에서 발견됨.
- 불법직업소개업소의 활동은 사람인(25.4%), 알바천국(21.1%), 알바몬(21.1%), 파인드잡(18.3%)에서 많이 발견됨.
- 불법파견, 불법직업소개업자들이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정보제공활동을 하고 있음.

3.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의 엉터리·불법 일자리 정보

1) 일하는 곳 업체명, 일하는 곳 위치 정확하지 않아



파견업체(위장도급업체 의심)의 구인광고

| | 빈도 | 비율 |
|---------|-------------|--------|
| 알바몬 | 75 (51.0%) | 27.0% |
| 사람인 | 48 (50.0%) | 17.3% |
| 잡코리아 | 46 (59.0%) | 16.5% |
| 파인드잡 | 28 (36.8%) | 10.1% |
| 알바천국 | 28 (38.9%) | 10.1% |
| 인크루트 | 25 (39.7%) | 9.0% |
| 기타 | 20 (95.2%) | 7.2% |
| 워크넷 | 5 (12.2%) | 1.8% |
| 일자리지원센터 | 3 (7.7%) | 1.1% |
| | 278 (43.9%) | 100.0% |

사용업체 비공개 건수(괄호는 조사건수대비 비공개비율)

- 제조업 생산직 구인광고를 내는 직업소개업체와 구인업체와 사용업체가 다른 파견업체들의 구인광고 특징 중 하나는 어디서 일하는지 사용업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임. 조사대상 중 278건(43.9%)가 구인광고에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지 않음.



- 또 위 그림처럼, 심지어 민간기관들에서는 사용업체의 위치를 부정확하게 입력해도 구인업체를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아래 사례처럼 엉터리 주소를 입력하고, 구인광고를 내도 지장이 없기 때문.

| | 전체 | | 공공 | | 민간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비공개 | 278 | 44.0% | 8 | 10.0% | 270 | 48.8% |
| - (통화) 끝내 비공개 | 65 | [42.2%] | 1 | [50.0%] | 64 | [42.1%] |
| - (통화) 공개 | 89 | [57.8%] | 1 | [50.0%] | 88 | [57.9%] |
| 공개 | 355 | 56.0% | 72 | 90.0% | 283 | 51.1% |

- 이번 조사과정에서 일하는 사업장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는 56.0%밖에 안 됨. 사업장 이름은 둘째치고 주소라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을 포함한 수치임.
- 공공기관은 90.0%가 사업장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음. 하지만 민간기관은 51.1%밖에 안 됨. 두 곳 중 한 곳은 내가 일할 사업장 위치가 어딘지 안 알려 주고 있음.
- 더 심각한 것은 전화통화를 해도 이들 직업소개·파견업체들이 사업장 위치를 안 알려준다는 것. 이번 조사과정에서 사업장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은 총 279 곳이었는데, 통화가 가능했던 152 곳에 대해 회사 이름과 위치를 물어보았지만, 이 중 88곳만 알려주고, 64곳은 회사 이름이나 위치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음.

2) 일하는 업체를 숨기는 위장도급업체들

| | 직고용 | | (합법)파견 | | 위장도급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비공개 | 36 | 13.7% | 6 | 11.5% | 236 | 74.5% |
| - (통화) 끝내 비공개 | 0 | [0.0%] | 4 | [66.7%] | 61 | [52.1%] |
| - (통화) 공개 | 31 | [100.0%] | 2 | [33.3%] | 56 | [47.9%] |
| 공개 | 228 | 86.4% | 46 | 88.5% | 81 | 25.5% |

- 직접 고용하는 회사들의 경우 대부분(86.3%) 사용업체가 공개되어 있고, 설사 비공개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화연락을 하면 100.0% 알려줌.
- 하지만 위장도급이 의심되는 업체들의 구인광고에서는 사용업체가 공개된 비율이 25.5%에 불과함. 파견이 허용된 직종에서 파견업을 하는 구인업체의 사용사업체 공개 비율이 88.5%인 것과 비교하면 극히 대조되는 현상. 심지어 위장도급업체들은 전화를 해도 사용업체를 알려주는 비중이 47.9%밖에 안 됨.¹⁰⁾

10) 파견이 허용된 직종에서 파견업을 하는 구인업체들이 사용업체 이름이나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는 여러 곳으로 파견을 나가기 때문이다.

[안산 사례] 통화녹취

- 없다. 시화공단이냐? PCB냐? 회사이름 알만한 곳?
- = 기계가공하는 회사.
- 정규직?
- = 처음에는 파견. 6개월 이후 정규직.
- 4대보험은?
- = 처음에는 안 됨. 저희 쪽은.
- 파견 때는 안 되는가? 정규직 달라지는 건?
- = 네. 정규직 되면 시급 변동이 있을 거고, 상여가 발생할 거다.
- 회사 이름은?
- = 그건 나중에 알려준다.

3) 원하지 않는 직업으로 구직자 직업소개

The image shows a text message on the left and a job listing table on the right.

Text Message Content:

안녕하세요...
 알바천국 보고 연락드려요^^
 1시간 일해봐야 치킨값도 안되는 알바비... 일해서 여행도 가야하고 취미생활도 해야되는데 돈,시간 워하냐 내맘대로 되는게 없으시죠??
 저희는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하고 오로지 예약제로만 운영 되는 "데이트카페" 입니다!!
 자유로운 출퇴근(주간,야간 선택가능 파트타임도 가능) 술마시는 일 절대 없습니다!! 페이 당일 현금 지급 (퇴근시 바로 드려요) 4만원부터 시작하고 역량에 따라+α *하루 40~50만원 벌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일하는 곳은 영등포, 신림 일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성실히 대답해드릴게요^^
 ※확실한 비밀보장 약속드립니다!!!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업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원하시는 목표 이룰때까지 서포트 하겠습니다!! 대학생,초보,투잡,주말 알바 모두 환영합니다 ^^

Job Listing Table:

| 이력서 열람기업 : 총 13건 | SMS 발송기업 : 총 0건 | 인사지원 요청일 |
|------------------|-----------------|-------------|
| 2018.09.17 | 용접 | 경기 시흥시 |
| 2018.09.17 | 인재파견 | 서울 서초구 서초1동 |
| 2018.09.17 | 콜센터 도급운영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
| 2018.09.17 | 근로지파견, 채용대행 | 서울 금천구 |
| 2018.09.17 | 일발제조,알말입가공 | 서울 도봉구 |
| 2018.09.17 | 아웃소싱 | 서울 금천구 가 |
| 2018.09.17 | LG 유폴러스 대표전화 | 서울 금천구 시흥동 |
| 2018.09.17 | 전문 통신업 | 서울 강남구 |
| 2018.09.17 | 채용대행 및 서비스대 | 서울 금천구 가산동 |
| 2018.09.17 | 서비스업 | |
| 2018.09.17 | 보험대리 및 중개업 | 서울 영등포구 |
| 2018.09.17 | 원격평생교육기관 | |
| 2018.09.17 | 캐주얼매업 | 강원 원주시 |

- 직업소개업자들이나 파견사업주들은 직업정보기관에 공지된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안내하기도 함.

- 민간기관들은 구직자들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이유로 공개이력서를 등록하도록 안내하는데, 이 과정에서 구직자가 전혀 원하지 않는 직업소개 안내자의 문자를 받기도 함.
- 심지어 유티업소를 안내하는 문자를 받기도 하는데, 공개이력서를 열람한 이들 중 누가 유티업소 구인 문자를 보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

4. 파견업체들의 위장도급 실태 : 기업화되고 대형화되는 위장도급

1) 등록된 파견업체들의 위장도급 실태

- 2018.10.8.~10.27까지, 2,388개의 등록된 파견업체들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에서 확인된 이들의 구인광고를 전수조사함. 이 과정에서 등록된 파견업체들이, 제조업 생산직 업무에서 위장도급을 하고 있는 현황을 다수 발견함. 293개(전체 12.2%)의 등록된 파견업체들의 불법파견 구인광고 863건을 확인한 것.

2) 지역과 업종을 넘나드는 위장도급

- <별첨자료 1>에서 보듯 이들 파견회사들은 파견허용직종은 물론 파견이 불허된 직종에서도,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파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음.
- 예컨대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직종에서 20개의 구인광고를 낸 한진스텝스(서울 남부지청 관할)는, 서울, 인천, 경기권은 물론, 충남, 충북, 전북까지 6개 광역시도를 넘나들며, 믹스커피, 면, 식자재 등 다양한 식품의 제조 및 포장 공정에서부터, 카메라 렌즈, PVC 바닥재, 광학필름에서부터 마스크, 플라스틱 사출까지 업종과 직종을 안 가리고 ‘도급’을 하고 있음.
- 부천에 소재한 파○○루션 역시 마찬가지. 이 파견업체는 주로 부천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생산업 분야는 매우 다양. 자동차 부품에서부터 LED, 전자제품, 은행OTP 기계, 도어락에서부터 심지어는 “피자” 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장, 조립, 사출, 사상, 검사 등 다양한 공정에 관여하는 ‘도급’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도급’은 법 논리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산업적으로는 불가능. 법망을 교묘히 피하려는 위장도급.

3) ‘도급’마다 상이한 근로조건

- 한진스텝스의 경우 ‘도급’하는 업무마다 임금수준이 다르고, 도급하는 업체마다 임금수준과 임금보상체계가 다름.
- 표에서 보는 것과 유사한 직무를 하는 경우에도 시급이 다른가하면 (이마트 생산 및 단순 포장은 7,660원, 글로텍 제조 및 포장은 7,530원) 상여금도 도급마다 100% ~ 200%까지, 어떤 곳

은 월할 지급하고, 어떤 곳은 생산수당 24.8만원을 지급하고 형태도 다양함.

- 이는 한진스텝스가 기본적인 노동조건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도급’ 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됨.

| 원청 | 임금형태 및 수준 | 상여금 유무 | 직무 |
|---------|-----------|----------------|------------------------|
| 이*트 | 시급 7,660 | | 생산 및 단순포장 |
| 에스***미칼 | | | 단순프레스 사출 |
| 모름 | 일급 88,000 | | 물티슈 생산 |
| 서* | 시급 7,530 | | 스트로우 생산, 검사 |
| 캠***코리아 | | | 제품포장 및 세제 충전 |
| 모름 | | | 면 생산 |
| 오* | 일급 12,000 | | 식품회사 생산팀 생산보조 |
| 천*식품 | 시급 7,530 | 150% 월할 지급 | 새우볶음밥 포장 |
| 씨**스성진 | 시급 | 100% | 마스크 생산 |
| 코*스 | 일급 80,000 | | 플라스틱 용기, 상차 |
| 이*에스 | | | 믹스커피 생산, 포장 |
| 글*텍 | 시급 7,530 | | 광학필름 생산 제조 포장 |
| 모름 | 시급 8,000 | 200% | 떡, 양갱, 식품류 선별 포장 |
| 모름 | | | 만두류 생산 및 포장 |
| 천*식품 | 시급 | 150% | 우동 포장 |
| 녹수 | 시급 7,530 | 생산수당 248,000 원 | pvc 바닥장판 생산 및 포장 |
| 세*닉스 | 시급 | 200% | 카메라 렌즈 생산 (포장, 조립, 검사) |
| 흥*장 | 시급 7,800 | | |
| 모름 | 일급 94,000 | | |
| 오* | 일급 10,000 | | 생산보조 |

4) 채용대행, 그리고 ‘도급’ 마다 상이한 정규직 전환 과정

- 공단지역 구인시장 조사에서 등록된 파견업체 일부가 불법적인 채용대행 업무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 바 있는데, 한진스텝스 역시 채용대행 업무를 하고 있음.

[등록업체 사례] 통화녹취

- 스트로우 만드는 곳? 어디?
- = 서*.

- 한진스텝스에서는 직업소개만?
- = 맞음
- 바로 서* 정규직?
- = 맞음

- 그런데 원청에 따라 정규직 전환과정에 차이가 있는데, 원청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 이는 한진스텝스가 ‘도급’ 을 하면서 고용형태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원청 | 정규직 전환과정 |
|---------|------------------|
| 서* | 채용대행 |
| 캠*필드코리아 | 파견직 → 정규직 |
| 오* | 파견직 → 정규직 |
| 씨***스성진 | 한진스텝스 정규직(아웃소싱) |
| 코*스 | 한진스텝스 정규직 (아웃소싱) |
| 글*텍 | 한진스텝스 정규직 (아웃소싱) |
| 천*식품 | 파견직 → 정규직 |
| 녹* | 한진스텝스 정규직 (아웃소싱) |
| 세*닉스 | 파견직 → 정규직 |

[한진스텝스 사례] 통화녹취

- 가능함. 한진스텝스 소속?
- = 맞음
-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정규직?
- = 그 회사 정규직
- 그 회사가 어디?
- = 천* 식품
- 한진스텝스에서 3-6개월 근무하고 나서 천일식품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 것?
- = 맞음

5) 불법파견 판결 받고도, 위장도급 행태는 여전

- 한진스텝스는 2018년 9월 12일, 독산동에 소재한 스마트폰 제조업체 『신영프레이션』에 도급을 하다,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 파견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음(2017구합87074). 하지만 지

금까지도 한진스택스는 등록된 파견업체로서 지위(허가번호 2003-61)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장도급으로 의심되는 ‘도급’, 즉 파견을 하고 있음.

- 파견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이들 파견업체들이 본연의 영역을 넘어 대형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음.

5. 구인광고에서 드러난 직업소개, 파견업체들의 노동법 무시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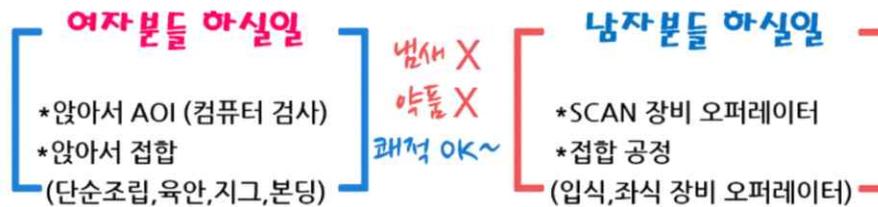
- 이번 조사에서 취합된 구인광고를, 구인광고를 낸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직업소개 기관이 160건, 파견업체(위장도급 포함)가 301건, 사용업주가 직접 공고한 게 172건임.¹¹⁾ 이하에서는 구인공고에서 이들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고용차별

| | 전체 | | 직업소개 | | 직접채용 | | 파견업체 | |
|------|-----|-------|------|-------|------|-------|------|-------|
| | 빈도 | 비중 | 빈도 | 비중 | 빈도 | 비중 | 빈도 | 비중 |
| 성별차별 | 212 | 37.9% | 31 | 21.2% | 73 | 42.4% | 108 | 44.8% |
| 나이차별 | 302 | 55.1% | 94 | 65.3% | 62 | 36.5% | 146 | 62.4% |

평일 1시 까지 방문하세요^^

첫출근 후 6~9개월 후 정직원 전환(시급 인상)



- 구직과정에서 구직자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고용차별. 한국의 노동시장은 성별, 연령별 차이에 따른 고용차별이 가장 심각한 나라.
- 그런데 정작 구직·구인관계를 매개한다는 파견업체와 직업소개소가 특정연령대 이상은 뽑지도 않는다는 구인광고를 내고 전화도 그렇게 상담하는 행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11) 직업소개소가 파견(위장도급)업체로 직업을 알선한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는 직업소개소가 채용공고를 낸 것으로 간주.

- 공단구직과정에서 구인업체에 면접일정을 잡기 위해 전화를 걸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나이가 몇 살이냐는 질문임. 30세 이상 혹은 40세 이상은 뽑지 않는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함. 특히 직업소개소와 파견업체에서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연장자면 아무리 구직하겠다고 호소해도 면접도 보지 않음.
- 성별 고용차별은 여전히 심각. 직접고용업체나 파견업체나 성별 고용차별을 하고 직무별로도 나눠 구인하는 행태는 여전.

[안산 사례] 통화녹취

- 맞교대하면 월급이?
 = 300선. 나이가?
 - 34
 = 34이면 지원 불가. 30살까지임. 가실 수 있는 데가... 20만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주간 고정인데... 여기가 상여금이 100%... 인테리어 내장재 회사. 가구회사. 34 정도면 pcv 경력이 있어야 함.
 - 수습이라도 할 수 없는가? 수습하다가 일 잘하면... 수습은 유**이트에서 하는 것 아닌가?
 = 그럴 수 없음. 수습은 저희 쪽에서 하는 건데, [원청에서] 면접 볼 때 될 가능성이 없다. 인사팀에서 나이 제한 두는 거다. 안 된다.

2) 4대보험 갈취

| | 전체 | | 직업소개 | | 직접채용 | | 파견업체 | |
|---------|----|-------|------|------|------|------|------|-------|
| | 빈도 | 비중 | 빈도 | 비중 | 빈도 | 비중 | 빈도 | 비중 |
| 4대보험 갈취 | 55 | 12.4% | 8 | 7.4% | 10 | 6.8% | 37 | 19.7% |

- 공단에서 구직을 하다보면 정규직 전환 약속을 많이 접하게 됨. 그런데 이 때 구직자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그때부터 4대보험을 들어주겠다는 이야기. 파견직 기간에는 계약직 기간에는 4대보험이 안 된다는 것.
- 이런 행태는 특히 파견업체의 구인광고에서 가장 많이 확인됨. 파견기간 동안 4대보험이 안 된다는 것. '4대보험 갈취' 는 파견업체의 큰 수익원 중 하나.

3)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종용하는 구인 광고

| | 전체 | 직업소개 | 직접채용 | 파견업체 |
|--------------|-------------|-------------|-------------|-------------|
| 시간당임금 (원) | 8,880.6 | 8,642.5 | 9,694.5 | 8,567.7 |
| 한달예상소득 | 2,459,900.6 | 2,585,204.2 | 2,071,114.3 | 2,554,919.6 |
| - (상여, 수당제외) | 2,381,465.2 | 2,485,421.7 | 2,036,408.2 | 2,470,354.4 |
| (예상) 노동시간 | 49.4 | 53.2 | 40.0 | 51.9 |

- 공단지역에서 구인광고 상 제시된 노동조건을 취합해 시간당 임금 수준, 구인업체가 요구하는 주당 노동시간을 계산할 수 있음.
- 일급과 월급을 모두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구인광고에 제시된 한 달 임금(주간임금)을 실수령액으로 간주하고, 여기서 상여금, 각종 수당을 빼서, 시간당임금에 한 달 소정근로시간(209)를 곱해 기본급을 산출하고, 이 금액과 상여금, 수당을 제외한 한 달 예상소득의 차이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간주할 수 있음. 이를 가지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 공단지역의 구인광고상 제시된 시간당임금 평균액은 8,880원이고, 한 달 예상소득 평균금액은 246만원임. 위의 계산 방법에 따라 1주일 예상 노동시간을 계산하면 49.4시간이 나옴. 초장시간노동을 종용하는 구인광고였던 것.
- 그런데 파견업체와 직업소개기관의 구인광고는 이보다 더 심각. 직접채용업체는 시간당임금 9,695원에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207만원의 임금을 제시하지만, 파견업체는 8,568원에 주 51.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55만원의 임금을 제시함. 직업소개업자는 시간당임금 8,643원에 주 53.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59만원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제시. 구인광고 자체가 장시간 노동을 종용하고 있는 것.
- 평균노동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법정근로시간의 상한선인 주 52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일자리도 많을 것임. 파견업체와 직업소개기관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주범 중 하나였던 것.

[안산 사례] 통화녹취

- 급여는
- = 수습 때는 만근 280-300 상여가 발생하면 +@
- 잔업은 매일?
- = 여기가 주 5일 근무기는 한데 잔업은 매일하고 주말특근도 있음. 여기는 300인 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68시간 적용됨. 52시간이 아니라 2년후에 되겠죠?

- 식대?
- = 식사제공
- 나이?
- = 40 넘으면 힘들, 선임들도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많아서

6. [소결]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 규제하고, 불법파견노동시장 제재해야

1)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 강력히 규제해야

- 알바몬, 사람인, 알바천국, 잡코리아, 인크루트, 파인드잡 등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은 불법파견업체, 불법직업소개소들이 난립하는 온상. 워크넷이나 지역일자리지원센터에 비해 노동부의 관리감독 규제를 거의 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일하는 사업체의 정보를 정확히 기술하지 않아도 구인광고를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가 매우 심각. 어디서 일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면접을 보러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불이익을 감내할 것을 일상적으로 종용하는 행위이기 때문.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를 통해서든 법제도 정비를 통해서든 이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함.
- 또한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에서 구직자가 전혀 원하지 않는 직업정보를 받아야 하는 문제는, 관련 사안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대응이 필요.

2) 중층화되고 복합적인 대형화되고 기업화되는 불법파견노동시장 규제해야

-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채용대행’ 과 같은 직업소개소, 노동력 중개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 민간고용서비스기관들이 발달하면 노동력 중개기관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늘어나면 사업주들의 직접 채용의무는 사라지고 말 것임. 노동력 중개기관이 늘면 고용관계의 책임선은 흐려지고, 그에 따라 노동자들의 교섭력(노동시장에서의 교섭력은 물론 작업장에서의 교섭력까지)은 현저히 하락할 것임.
- 또 노동력 중개기관들에 의한 중간착취만 늘어날 뿐임. 구인자에게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고는 하지만, 사업주들에게 각종 수수료를 받고 있고 그에 따라 저임금 노동시장이 형성될

것은 당연히 예고되는 수준. 게다가 이렇게 간단히 확인된 파견업체의 4대 보험료 갈취 비율이 19.7%나 된다는 건, 이들의 중간착취행위가 실제로는 더 많을 것임을 시사함.

- 또 직업소개기능과 파견기능이 혼재될수록 혹은 겸업이 확대되면 될수록, 이럴 땐 파견법 규제망을 피하고 저럴 땐 직안법 규제망을 회피하는 탈법적 행태는 더욱 늘어나고 말 것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자 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노동력 중개기관들을 최소규모로 관리해야 함.

3) 불법파견 노동시장을 확산시키는 기업형 파견업체들, 일벌백계해야

- 2,388개의 등록된 파견업체들을 대상으로 구인시장을 전수조사 한 결과 10월 한달 사이에만 293개 파견업체들의 위장도급 구인광고 863건을 확인함. 이들의 범망을 피하는 행태와 업종과 직종에 가리지 않고 문어발식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행태는 도를 넘어섰음.
- 위장도급을 하는 기업들의 성장은 콜센터 등 합법화된 파견노동시장에서 노동력 중개과정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일면적 계약관계만을 규제하는 노동법을 회피하는 기술들이 축적된 결과임.
- 따라서 이들의 불법·탈법적 행태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불법파견, 불법직업소개 등을 하는 파견업체들의 일탈에 대해, 등록 취소, 사업주 엄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함. 파견노동시장에서 이들의 자유로운 ‘기업행위’는 노동시장을 혼탁하게 할 뿐이고, 노동법이 부여하는 최소한의 노동권마저 해체시킬 뿐임.
- 또 기존 노동법을 조롱하며 ‘파견이 아니라 도급’ 이라고 태연자약하게 주장하는 이들을 규제하려면, 이들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함. 일벌백계만으로는 충분치 않음.

4) 노동력 중개시장 최소화하고, 직접고용사용자의 책임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 민간고용서비스 확대론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구인구직과정에서 미스매치를 낮추고 그래서 실업률을 낮춤과 동시에 노동시장을 좀 더 낮게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왔음. 하지만 이들의 구인시장을 분석해 본 결과, 정반대의 사실만 확인함. 이들은 고용불평등을 조장하면서 미스매치를 오히려 확대시켰고, 공단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법정노동시간 상한을 훨씬 웃도는 장시간 일자리를 중용함으로써 이것이 ‘최고의 일자리’ 인 양 둔갑시켜 놓았음.
- 파견법 20년, 파견노동시장 확대는 파견이 허용된 직종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님. 노동력

중개기관들이 활발해지면, 파견이 허용된 직종이 아닌 공단노동시장마저 심각하게 왜곡시킴. 그 사실을 이번 공단실태조사에서 확인함. 왜 이렇게 왜곡되었는지 되짚어야 함.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국면에서 공단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양상은 더욱 심해질 것임. 더 늦어지기 전에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개시해야 함. 직접고용과 함께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지역별) 파견노동시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표

1. 조사 현황

1) 지역

| | 빈도 | 비율 |
|-------------|------------|---------------|
| 서울남부 | 255 | 38.1% |
| 금천 | 189 | 28.3% |
| 구로 | 66 | 9.9% |
| 충남 | 149 | 22.3% |
| 천안 | 82 | 12.3% |
| 아산 | 47 | 7.0% |
| 당진 | 19 | 2.8% |
| 서산 | 1 | 0.1% |
| 안산 | 136 | 20.3% |
| 반월 | 98 | 14.6% |
| 시화 | 32 | 4.8% |
| 기타 | 6 | 0.9% |
| 인천 | 89 | 13.3% |
| 부평 | 76 | 11.4% |
| 남동 | 13 | 1.9% |
| 대구 | 40 | 6.0% |
| 성서 | 40 | 6.0% |
| 전체 | 669 | 100.0% |

2) 직업정보제공기관

| | 전체 | | 서울남부 | | 충남 | | 안산 | | 인천 | | 대구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민간 | 589 | 88.0% | 204 | 80.0% | 132 | 88.6% | 124 | 91.2% | 89 | 100.0% | 40 | 100.0% |
| 알바몬 | 147 | 22.0% | 33 | 12.9% | 8 | 5.4% | 31 | 22.8% | 75 | 84.3% | | 0.0% |
| 사람인 | 103 | 15.4% | 34 | 13.3% | 21 | 14.1% | 39 | 28.7% | 1 | 1.1% | 8 | 20.0% |
| 알바천국 | 94 | 14.1% | 31 | 12.2% | 15 | 10.1% | 27 | 19.9% | 5 | 5.6% | 16 | 40.0% |
| 잡코리아 | 83 | 12.4% | 26 | 10.2% | 46 | 30.9% | 1 | 0.7% | 3 | 3.4% | 7 | 17.5% |
| 인크루트 | 76 | 11.4% | 46 | 18.0% | | 0.0% | 26 | 19.1% | | 0.0% | 4 | 10.0% |
| 파인드잡 | 64 | 9.6% | 34 | 13.3% | 23 | 15.4% | | 0.0% | 3 | 3.4% | 4 | 10.0% |
| 기타 | 22 | 3.3% | | 0.0% | 19 | 12.8% | | 0.0% | 2 | 2.2% | 1 | 2.5% |
| 공공 | 80 | 12.0% | 51 | 20.0% | 17 | 11.4% | 12 | 8.8% | | 0.0% | | 0.0% |
| 일자리지원센터 | 41 | 6.1% | 33 | 12.9% | 8 | 5.4% | | 0.0% | | 0.0% | | 0.0% |
| 워크넷 | 39 | 5.8% | 18 | 7.1% | 9 | 6.0% | 12 | 8.8% | | 0.0% | | 0.0% |
| 전체 | 669 | 100.0% | 255 | 100.0% | 149 | 100.0% | 136 | 100.0% | 89 | 100.0% | 40 | 100.0% |

3) 구인업체 성격

| | 전체 | | 서울남부 | | 충남 | | 안산 | | 인천 | | 대구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직접구인 | 174 | 26.0% | 156 | 61.2% | 3 | 2.0% | 14 | 10.3% | 1 | 1.1% | | 0.0% |
| 파견업체 구인 | 332 | 49.6% | 44 | 17.3% | 115 | 77.2% | 48 | 35.3% | 87 | 97.8% | 38 | 95.0% |
| 직업소개소 구인 | 163 | 24.4% | 55 | 21.6% | 31 | 20.8% | 74 | 54.4% | 1 | 1.1% | 2 | 5.0% |
| 전체 | 669 | 100.0% | 255 | 100.0% | 149 | 100.0% | 136 | 100.0% | 89 | 100.0% | 40 | 100.0% |

2.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

1) 업종

| | 전체 | | 서울남부 | | 충남 | | 안산 | | 인천 | | 대구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제조업 | 500 | 74.7% | 103 | 40.4% | 142 | 95.3% | 130 | 95.6% | 86 | 96.6% | 39 | 97.5% |
| 전기·전자 | 213 | 31.8% | 45 | 17.6% | 36 | 24.2% | 96 | 70.6% | 26 | 29.2% | 10 | 25.0% |
| 자동차·부품 | 83 | 12.4% | 3 | 1.2% | 42 | 28.2% | 9 | 6.6% | 8 | 9.0% | 21 | 52.5% |
| 기계·철강 | 77 | 11.5% | 31 | 12.2% | 18 | 12.1% | 10 | 7.4% | 15 | 16.9% | 3 | 7.5% |
| 석유화학 | 63 | 9.4% | 3 | 1.2% | 24 | 16.1% | 6 | 4.4% | 30 | 33.7% | | 0.0% |
| 식품·제조 | 23 | 3.4% | 3 | 1.2% | 11 | 7.4% | 4 | 2.9% | 2 | 2.2% | 3 | 7.5% |
| 기타제조 | 21 | 3.1% | 9 | 3.5% | 9 | 6.0% | 1 | 0.7% | 1 | 1.1% | 1 | 2.5% |
| 섬유·의복 | 11 | 1.6% | 6 | 2.4% | 1 | 0.7% | 2 | 1.5% | 2 | 2.2% | | 0.0% |
| 목재·종이 | 9 | 1.3% | 3 | 1.2% | 1 | 0.7% | 2 | 1.5% | 2 | 2.2% | 1 | 2.5% |
| 비제조 | 169 | 25.3% | 152 | 59.6% | 7 | 4.7% | 6 | 4.4% | 3 | 3.4% | 1 | 2.5% |
| 운수·도소매 | 73 | 10.9% | 60 | 23.5% | 7 | 4.7% | 3 | 2.2% | 3 | 3.4% | | 0.0% |
| 정보·기술 | 58 | 8.7% | 55 | 21.6% | | 0.0% | 2 | 1.5% | | 0.0% | 1 | 2.5% |
| 사업지원 | 36 | 5.4% | 35 | 13.7% | | 0.0% | 1 | 0.7% | | 0.0% | | 0.0% |
| 기타 | 2 | 0.3% | 2 | 0.8% | | 0.0% | | 0.0% | | 0.0% | | 0.0% |
| 전체 | 669 | 100.0% | 255 | 100.0% | 149 | 100.0% | 136 | 100.0% | 89 | 100.0% | 40 | 100.0% |

2) 사업장 규모

| 사업장규모 | 전체 | | 서울남부 | | 충남 | | 안산 | | 인천 | | 대구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1~99 | 238 | 48.1% | 147 | 60.5% | 32 | 39.5% | 36 | 31.9% | 22 | 40.0% | 1 | 33.3% |
| 100~299 | 73 | 14.7% | 21 | 8.6% | 21 | 25.9% | 12 | 10.6% | 18 | 32.7% | 1 | 33.3% |
| 300~999 | 86 | 17.4% | 17 | 7.0% | 24 | 29.6% | 38 | 33.6% | 7 | 12.7% | | 0.0% |
| 1000~ | 98 | 19.8% | 58 | 23.9% | 4 | 4.9% | 27 | 23.9% | 8 | 14.5% | 1 | 33.3% |
| 소계 | 495 | 100.0% | 243 | 100.0% | 81 | 100.0% | 113 | 100.0% | 55 | 100.0% | 3 | 100.0% |

3) 직종

| | 전체 | | 서울남부 | | 충남 | | 안산 | | 인천 | | 대구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생산직 | 511 | 76.4% | 105 | 41.2% | 144 | 96.6% | 135 | 99.3% | 88 | 98.9% | 39 | 97.5% |
| 반숙련직 | 355 | 53.1% | 47 | 18.4% | 114 | 76.5% | 113 | 83.1% | 56 | 62.9% | 25 | 62.5% |
| 단순직 | 115 | 17.2% | 42 | 16.5% | 22 | 14.8% | 12 | 8.8% | 30 | 33.7% | 9 | 22.5% |
| 숙련직 | 41 | 6.1% | 16 | 6.3% | 8 | 5.4% | 10 | 7.4% | 2 | 2.2% | 5 | 12.5% |
| 사무직 | 144 | 21.5% | 136 | 53.3% | 5 | 3.4% | 1 | 0.7% | 1 | 1.1% | 1 | 2.5% |
| 사무직 | 99 | 14.8% | 91 | 35.7% | 5 | 3.4% | 1 | 0.7% | 1 | 1.1% | 1 | 2.5% |
| 전문직 | 45 | 6.7% | 45 | 17.6% | | 0.0% | | 0.0% | | 0.0% | | 0.0% |
| 서비스직 | 14 | 2.1% | 14 | 5.5% | | 0.0% | | 0.0% | | 0.0% | | 0.0% |
| 판매직 | 13 | 1.9% | 13 | 5.1% | | 0.0% | | 0.0% | | 0.0% | | 0.0% |
| 서비스직 | 1 | 0.1% | 1 | 0.4% | | 0.0% | | 0.0% | | 0.0% | | 0.0% |
| 전체 | 669 | 100.0% | 255 | 100.0% | 149 | 100.0% | 136 | 100.0% | 89 | 100.0% | 40 | 100.0% |

3. 사업장 위치 확인 경로

| | 전체 | | 서울남부 | | 충남 | | 안산 | | 인천 | | 대구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기본구인광고 | 358 | 53.5% | 229 | 89.8% | 30 | 20.1% | 64 | 47.1% | 32 | 36.0% | 4 | 10.0% |
| 전화 | 105 | 15.7% | 12 | 4.7% | 38 | 25.5% | 49 | 36.0% | 5 | 5.6% | | 0.0% |
| 방문 | 2 | 0.3% | 2 | 0.8% | | 0.0% | | 0.0% | | 0.0% | | 0.0% |
| 모름 | 165 | 24.7% | 1 | 0.4% | 73 | 49.0% | 20 | 14.7% | 35 | 39.3% | 36 | 90.0% |
| 추적 | 39 | 5.8% | 11 | 4.3% | 8 | 5.4% | 3 | 2.2% | 17 | 19.1% | | 0.0% |
| 전체 | 669 | 100.0% | 255 | 100.0% | 149 | 100.0% | 136 | 100.0% | 89 | 100.0% | 40 | 100.0% |

4. 고용형태

| | 전체 | | 서울남부 | | 충남 | | 안산 | | 인천 | | 대구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직접 | 260 | 38.9% | 186 | 72.9% | 17 | 11.4% | 55 | 40.4% | 2 | 2.2% | | 0.0% |
| 파견 | 409 | 61.1% | 69 | 27.1% | 132 | 88.6% | 81 | 59.6% | 87 | 97.8% | 40 | 100.0% |
| 합법파견 | 50 | 7.5% | 50 | 19.6% | | 0.0% | | 0.0% | | 0.0% | | 0.0% |
| 위장도급 | 359 | 53.7% | 19 | 7.5% | 132 | 88.6% | 81 | 59.6% | 87 | 97.8% | 40 | 100.0% |
| 전체 | 669 | 100.0% | 255 | 100.0% | 149 | 100.0% | 136 | 100.0% | 89 | 100.0% | 40 | 100.0% |

5. 불법 직업소개, 무허가 파견 및 위장도급

1) 불법 직업소개

| | 전체 | | 서울남부 | | 충남 | | 안산 | | 인천 | | 대구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직업소개 | 167 | 25.0% | 55 | 21.6% | 34 | 22.8% | 74 | 54.4% | 2 | 2.2% | 2 | 5.0% |
| 등록직업소개소 | 79 | [47.3%] | 17 | [30.9%] | 21 | [61.8%] | 39 | [52.7%] | 2 | [100.0%] | 2 | [100.0%] |
| 미등록업체 | 88 | [52.7%] | 38 | [69.1%] | 13 | [38.2%] | 35 | [47.3%] | | [0.0%] | | [0.0%] |
| 전체 | 669 | 100.0% | 255 | 100.0% | 149 | 100.0% | 136 | 100.0% | 89 | 100.0% | 40 | 100.0% |

| | 전체 | | 서울남부 | | 충남 | | 안산 | | 인천 | | 대구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직업소개 | 167 | 25.0% | 55 | 21.6% | 34 | 22.8% | 74 | 54.4% | 2 | 2.2% | 2 | 5.0% |
| 등록업체 | 79 | 47.3% | 17 | 30.9% | 21 | 61.8% | 39 | 52.7% | 2 | 100.0% | | 0.0% |
| 파견업체 (겸업) | 9 | 5.4% | 5 | 9.1% | 1 | 2.9% | 3 | 4.1% | | 0.0% | | 0.0% |
| 직업소개소 | 70 | 41.9% | 12 | 21.8% | 20 | 58.8% | 36 | 48.6% | 2 | 100.0% | | 0.0% |
| 미등록업체 | 88 | 52.7% | 38 | 69.1% | 13 | 38.2% | 35 | 47.3% | | 0.0% | 2 | 100.0% |
| 파견업체 | 21 | 12.6% | 4 | 7.3% | | 0.0% | 17 | 23.0% | | 0.0% | | 0.0% |
| 임의업체 | 67 | 40.1% | 34 | 61.8% | 13 | 38.2% | 18 | 24.3% | | 0.0% | 2 | 100.0% |

2) 무허가 파견 및 위장도급

| | 전체 | | 서울남부 | | 충남 | | 안산 | | 인천 | | 대구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직접계약 | 260 | 38.9% | 186 | 72.9% | 17 | 11.4% | 55 | 40.4% | 2 | 2.2% | | 0.0% |
| 파견 | 409 | 61.1% | 69 | 27.1% | 132 | 88.6% | 81 | 59.6% | 87 | 97.8% | 40 | 100.0% |
| (위장도급) | 359 | 53.7% | 19 | 7.5% | 132 | 88.6% | 81 | 59.6% | 87 | 97.8% | 40 | 100.0% |
| 허가 | 157 | [38.4%] | 59 | [85.5%] | 14 | [10.6%] | 28 | [34.6%] | 54 | [62.1%] | 2 | [5.0%] |
| 무허가 | 252 | [61.6%] | 10 | [14.5%] | 118 | [89.4%] | 53 | [65.4%] | 33 | [37.9%] | 38 | [95.0%] |
| 전체 | 669 | 100.0% | 255 | 100.0% | 149 | 100.0% | 136 | 100.0% | 89 | 100.0% | 40 | 100.0% |

| | 전체 | | 서울남부 | | 충남 | | 안산 | | 인천 | | 대구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파견 | 409 | 100.0% | 69 | 100.0% | 132 | 100.0% | 81 | 100.0% | 87 | 100.0% | 40 | 100.0% |
| (합법)파견 | 50 | 12.2% | 50 | 72.5% | | | | | | | | |
| 허가 | 47 | [94.0%] | 47 | [94.0%] | | | | | | | | |
| 무허가 | 3 | [6.0%] | 3 | [6.0%] | | | | | | | | |
| 위장도급 | 359 | 87.8% | 19 | 27.5% | 132 | 100.0% | 81 | 100.0% | 87 | 100.0% | 40 | 100.0% |
| 파견업체 | 110 | [30.6%] | 12 | [63.2%] | 13 | [9.8%] | 28 | [28.4%] | 54 | [64.4%] | 2 | [5.0%] |
| 임의업체 | 249 | [69.4%] | 7 | [36.8%] | 119 | [90.2%] | 53 | [71.6%] | 33 | [35.6%] | 38 | [95.0%] |

6. 파견업체 및 위장도급업체 유형

1) 파견업체의 유형

| | 전체 | | 서울남부 | | 충남 | | 안산 | | 인천 | | 대구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단순형 | 135 | 33.0% | 3 | 4.3% | 47 | 35.6% | 50 | 61.7% | 20 | 23.0% | 15 | 37.5% |
| 전문형 | 56 | 13.7% | 41 | 59.4% | 6 | 4.5% | 1 | 1.2% | 7 | 8.0% | 1 | 2.5% |
| 컨택전문 | 34 | 8.3% | 34 | 49.3% | | 0.0% | | 0.0% | | 0.0% | | 0.0% |
| 물류포장 | 10 | 2.4% | 4 | 5.8% | 2 | 1.5% | | 0.0% | 4 | 4.6% | | 0.0% |
| 동종생산 | 9 | 2.2% | | 0.0% | 4 | 3.0% | 1 | 1.2% | 3 | 3.4% | 1 | 2.5% |
| IT전문 | 2 | 0.5% | 2 | 2.9% | | 0.0% | | 0.0% | | 0.0% | | 0.0% |
| 판매전문 | 1 | 0.2% | 1 | 1.4% | | 0.0% | | 0.0% | | 0.0% | | 0.0% |
| 복합형 | 218 | 53.3% | 25 | 36.2% | 79 | 59.8% | 30 | 37.0% | 60 | 69.0% | 24 | 60.0% |
| 이종생산 | 167 | 40.8% | 6 | 8.7% | 64 | 48.5% | 28 | 34.6% | 46 | 52.9% | 23 | 57.5% |
| 이종생산, 그외 | 16 | 3.9% | 3 | 4.3% | 7 | 5.3% | | 0.0% | 6 | 6.9% | | 0.0% |
| 생산, 물류 등 | 18 | 4.4% | 2 | 2.9% | 8 | 6.1% | 2 | 2.5% | 5 | 5.7% | 1 | 2.5% |
| 콜센터, 생산 등 | 12 | 2.9% | 10 | 14.5% | | 0.0% | | 0.0% | 2 | 2.3% | | 0.0% |
| 사업지원, 물류 등 | 5 | 1.2% | 4 | 5.8% | | 0.0% | | 0.0% | 1 | 1.1% | | 0.0% |
| 파견 전체 | 409 | 100.0% | 69 | 100.0% | 132 | 100.0% | 81 | 100.0% | 87 | 100.0% | 40 | 100.0% |

2) 위장도급업체의 유형

| | 전체 | | 서울남부 | | 충남 | | 안산 | | 인천 | | 대구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단순형 | 134 | 37.3% | 2 | 10.5% | 47 | 35.6% | 50 | 61.7% | 20 | 23.0% | 15 | 37.5% |
| 전문형 | 20 | 5.6% | 5 | 26.3% | 6 | 4.5% | 1 | 1.2% | 7 | 8.0% | 1 | 2.5% |
| 물류포장 | 10 | 2.8% | 4 | 21.1% | 2 | 1.5% | | 0.0% | 4 | 4.6% | | 0.0% |
| 동종생산 | 9 | 2.5% | | 0.0% | 4 | 3.0% | 1 | 1.2% | 3 | 3.4% | 1 | 2.5% |
| 판매전문 | 1 | 0.3% | 1 | 5.3% | | 0.0% | | 0.0% | | 0.0% | | 0.0% |
| 복합형 | 205 | 57.1% | 12 | 63.2% | 79 | 59.8% | 30 | 37.0% | 60 | 69.0% | 24 | 60.0% |
| 이종생산 | 166 | 46.2% | 5 | 26.3% | 64 | 48.5% | 28 | 34.6% | 46 | 52.9% | 23 | 57.5% |
| 이종생산, 그외 | 16 | 4.5% | 3 | 15.8% | 7 | 5.3% | | 0.0% | 6 | 6.9% | | 0.0% |
| 생산, 물류 등 | 18 | 5.0% | 2 | 10.5% | 8 | 6.1% | 2 | 2.5% | 5 | 5.7% | 1 | 2.5% |
| 콜센터, 생산 등 | 3 | 0.8% | 1 | 5.3% | | 0.0% | | 0.0% | 2 | 2.3% | | 0.0% |
| 사업지원, 물류 등 | 2 | 0.6% | 1 | 5.3% | | 0.0% | | 0.0% | 1 | 1.1% | | 0.0% |
| 위장도급 전체 | 359 | 100.0% | 19 | 100.0% | 132 | 100.0% | 81 | 100.0% | 87 | 100.0% | 40 | 100.0% |

7. 중층적 노동시장과 정규직 전환

1) 중층적 노동시장

| | 전체 | | 서울남부 | | 충남 | | 안산 | | 인천 | | 대구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단면근로계약 | 260 | 38.9% | 186 | 72.9% | 17 | 11.4% | 55 | 40.4% | 2 | 2.2% | 0 | 0.0% |
| 직접 | 169 | 25.3% | 151 | 59.2% | 3 | 2.0% | 14 | 10.3% | 1 | 1.1% | | |
| 소개·직접 | 71 | 10.6% | 15 | 5.9% | 14 | 9.4% | 41 | 30.1% | 1 | 1.1% | | |
| 소개·직접·도급 | 20 | 3.0% | 20 | 7.8% | | | | | | | | |
| 다면근로계약 | 409 | 61.1% | 69 | 27.1% | 132 | 88.6% | 81 | 59.6% | 87 | 97.8% | 40 | 100.0% |
| 간접 | 290 | 43.3% | 34 | 13.3% | 108 | 72.5% | 25 | 18.4% | 86 | 96.6% | 37 | 92.5% |
| 파견·도급 | 38 | 5.7% | 10 | 3.9% | 4 | 2.7% | 23 | 16.9% | | 0.0% | 1 | 2.5% |
| 소개·간접 | 70 | 10.5% | 14 | 5.5% | 20 | 13.4% | 33 | 24.3% | 1 | 1.1% | 2 | 5.0% |
| 소개·파견·도급 | 11 | 1.6% | 11 | 4.3% | | 0.0% | | 0.0% | | 0.0% | | 0.0% |
| 전체 | 669 | 100.0% | 255 | 100.0% | 149 | 100.0% | 136 | 100.0% | 89 | 100.0% | 40 | 100.0% |

2) 정규직 전환과정

| | 전체 | | 서울남부 | | 충남 | | 안산 | | 인천 | | 대구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파견→정규직 | 119 | 47.0% | 13 | 24.5% | 29 | 65.2% | 20 | 22.1% | 42 | 79.6% | 15 | 100.0% |
| 파견→계약→정규 | 8 | 3.2% | 3 | 3.5% | 3 | 7.2% | 1 | 1.1% | 1 | 1.9% | | 0.0% |
| 파견→도급상용 | 34 | 13.4% | | 0.0% | 5 | 11.8% | 22 | 24.3% | 7 | 12.9% | | 0.0% |
| 도급(계약→상용) | 25 | 9.9% | 2 | 1.0% | 2 | 4.6% | 19 | 20.2% | 2 | 3.9% | | 0.0% |
| 계약→정규 | 67 | 26.5% | 33 | 71.0% | 5 | 11.3% | 28 | 32.4% | 1 | 1.7% | | 0.0% |
| 소계 | 253 | 100.0% | 51 | 100.0% | 44 | 100.0% | 90 | 100.0% | 53 | 100.0% | 15 | 100.0% |

3) 처우개선

| | 전체 | | 서울남부 | | 충남 | | 안산 | | 인천 | | 대구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상여금 | 69 | 40.4% | 3 | 22.7% | 5 | 13.8% | 49 | 64.9% | 12 | 29.3% | 0 | 0% |
| 임금 | 37 | 21.6% | 5 | 33.3% | 1 | 2.8% | 20 | 25.1% | 11 | 28.0% | 0 | 0% |
| 수습 끝 | 25 | 14.6% | 5 | 20.8% | 16 | 41.4% | | 0.0% | 4 | 9.9% | 0 | 0% |
| 복리후생 | 3 | 1.8% | 2 | 12.0% | | 0.0% | 1 | 1.0% | | 0.0% | 0 | 0% |
| 기타 | 37 | 21.6% | 2 | 11.3% | 16 | 41.9% | 6 | 8.9% | 13 | 32.9% | 0 | 0% |
| 소계 | 171 | 100.0% | 17 | 100.0% | 38 | 100.0% | 76 | 100.0% | 40 | 100.0% | 0 | 0% |

8. 노동법 위반

| | N | 성차별 | | 나이차별 | | 파견차별 | | 4대보험갈취 |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서울남부 | 255 | 74 | 29.0% | 91 | 36.0% | 18 | 26.1% | 15 | 6.4% |
| 충남 | 149 | 50 | 45.5% | 53 | 67.9% | 39 | 29.5% | 25 | 22.7% |
| 안산 | 136 | 45 | 33.1% | 109 | 80.1% | 62 | 76.5% | 13 | 10.9% |
| 인천 | 89 | 52 | 59.1% | 49 | 59.8% | 52 | 59.8% | 4 | 4.9% |
| 대구 | 40 | 10 | 25.0% | 16 | 42.1% | 15 | 37.5% | 0 | 0.0% |
| 전체 | 669 | 231 | 36.7% | 318 | 54.2% | 186 | 45.5% | 57 | 9.7% |

9. 노동조건

| | N | 시간당임금 | 한달예상소득 | 상여금 | 한달소득_수당제외 | 예상노동시간 |
|------------|------------|--------------|------------------|--------------|------------------|-------------|
| 서울남부 | 255 | 9,169 | 2,008,063 | 117.3 | 1,973,872 | 41.5 |
| 충남 | 149 | 8,352 | 2,705,193 | 253.8 | 2,614,891 | 55.3 |
| 안산 | 136 | 7,878 | 2,783,655 | 224.8 | 2,647,548 | 60.4 |
| 인천 | 89 | 8,476 | 2,359,105 | 257.5 | 2,253,089 | 47.8 |
| 대구 | 40 | 10,106 | 2,464,848 | 179.2 | 2,372,194 | 44.4 |
| 총합계 | 669 | 8,678 | 2,427,906 | 225.0 | 2,343,946 | 49.5 |

등록된 파견업체의 위장도급 의심사례

| 서울청 (23개) | 55 | 경기 (18개) | 58 | 중부청 (26개) | 76 |
|-------------------|-----------|-----------------|-----------|-------------------|-----------|
| *린맨파워 | 1 | *일엔지니어링 | 1 | *온잡 | 3 |
| *린피플 | 2 | *트론 | 3 | *린씨시스템 | 1 |
| *덕휴비즈 | 1 | *신 | 2 | *일하이택 | 1 |
| *맨 | 1 | *우로지스 | 1 | *가 | 3 |
| *라운네트웍스 | 1 | *아이제이 | 2 | *즈웰 | 7 |
| *구아이앤씨 | 1 | *에스파트너 | 4 | *진글로시스 | 1 |
| *탭스 | 10 | *즈콤 | 3 | *종솔루션 | 1 |
| *탭포유 | 1 | *스피 | 4 | *마트플러스 | 3 |
| *이스휴먼파워 | 1 | *스엠텍 | 6 | *카우트라인 | 1 |
| *이젝코리아 | 1 | *프엔비네트웍스 | 6 | *에스코어 | 6 |
| *이치알메이트 | 2 | *투엠에이치알 | 2 | *리테크 | 3 |
| *이치엘에스 | 2 | *신 | 5 | *정오에스 | 3 |
| *림비엠에스 | 1 | *도테크윈 | 2 | *니메이트 | 2 |
| *엔잡 | 2 | *사천리 | 3 | *리온 | 3 |
| *노싱크 | 4 | *은누리 | 4 | *지오에스 | 6 |
| *터코리아맨파워시스템 | 5 | *이탑 | 4 | *서치 | 3 |
| *이앤피21 | 3 | *성그룹 | 3 | *이엠잡 | 2 |
| *이텍맨파워 | 6 | *국커리어서치 | 3 | *이엠파트너 | 1 |
| *리서비스 | 3 | 성남 (5개) | 10 | *이지시스템 | 2 |
| *리워크포스솔루션 | 2 | *도피엔에이 | 4 | *이케이피플 | 2 |
| *리아맨파워시스템 | 2 | *진시스템 | 1 | *영테크 | 5 |
| *이맥스컨설팅 | 1 | *일로지스 | 1 | *에스시스템 | 1 |
| *성이엔지 | 2 | *새미아웃소싱 | 2 | *이앤비이 | 5 |
| 서울강남 (16개) | 53 | *플러스 | 2 | *성솔루션 | 2 |
| *튼캐슬 | 1 | 안산 (25개) | 64 | *인트테크 | 2 |
| *원로지스틱스 | 8 | *이드잡 | 3 | *늘정보 | 7 |
| *앤스탬스 | 2 | *원시스템 | 1 | 인천북부 (16개) | 81 |
| *파워코리아 | 9 | *광안전관리 | 1 | *드코퍼레이션 | 4 |
| *보스링크 | 6 | *원코리아 | 2 | *리네트웍 | 7 |
| *에스에치 | 4 | *휴먼 | 2 | *림넷 | 3 |
| *울커뮤니케이션 | 1 | *드온 | 3 | *크인 | 4 |
| *이시리우스 | 4 | *마트아이 | 1 | *로 | 7 |
| *앤비파트너스 | 1 | *영시스템 | 7 | *에스솔루션 | 7 |
| *스씨케이 | 5 | *이스씨치 | 4 | *경인더스트리 | 3 |
| *스코리아 | 1 | *투케이 | 1 | *원시스템 | 1 |
| *드와이드서비스코리아 | 2 | *경 | 3 | *일솔루션 | 8 |
| *안에이치알 | 2 | *지코리아 | 5 | *스피솔루션 | 1 |
| *엔제이코리아 | 2 | *이앤에스컴퍼니 | 2 | *림스탬스 | 7 |
| *풍코리아 | 4 | *이지테크 | 1 | *이유 | 8 |

| | | | | | | | |
|-------------------|-----------|--|-----------------|-----------|--|-----------------|------------|
| *광개발 | 1 | | *우종합관리 | 1 | | *이티엘시스템스 | 3 |
| 서울관악 (15개) | 58 | | *명 | 1 | | *탈솔루션 | 3 |
| *원산업관리 | 2 | | *성솔루션 | 6 | | *리잡 | 4 |
| *월아이엔씨 | 27 | | *움아웃소싱 | 3 | | *먼앤비전 | 11 |
| *토스솔루션 | 7 | | *탈네트워크 | 2 | | 부천 (25개) | 110 |
| *에스에이치알 | 1 | | *러스잡 | 4 | | *맨플러스 | 4 |
| *구에프에스 | 3 | | *나테크솔루션 | 2 | | *타임솔루션 | 5 |
| *운에이치에스 | 3 | | *이레벨 | 2 | | *승아웃소싱 | 4 |
| *이원맨파워 | 5 | | *아름관리 | 1 | | *진시스템 | 1 |
| *앵커리어 | 1 | | *신테크 | 1 | | *하이아웃소싱 | 13 |
| *이디에이치알 | 1 | | *먼워크 | 5 | | *신솔루션 | 4 |
| *리아휴먼리스오스시스템 | 1 | | 안양 (5개) | 21 | | *드림네트워크 | 10 |
| *성공사 | 1 | | *형 | 3 | | *아이솔루션 | 3 |
| *맨파워 | 1 | | *이엠컨설팅 | 6 | | *진솔루션 | 1 |
| *국주택이엔씨 | 3 | | *크히어 | 1 | | *우이노시스 | 6 |
| *밀컨설팅아이엔씨 | 1 | | *상에스앤에스 | 7 | | *인스텝스 | 2 |
| *먼수피아 | 1 | | *스트컴퍼니 | 4 | | *리얼커뮤니케이션 | 3 |
| 서울남부 (23개) | 57 | | 평택 (13개) | 26 | | *스 와이솔루션 | 3 |
| *암 | 1 | | *나티엠 | 1 | | *스제이솔루션 | 1 |
| *현시스템 | 1 | | *제솔루션 | 2 | | *이블스텝스 | 7 |
| *명물류 | 1 | | *진 | 3 | | *이치솔루션 | 1 |
| *로스맨파워 | 3 | | *스휴먼 | 1 | | *이앤씨컴퍼니 | 4 |
| *인비즈 | 2 | | *젠코리아 | 4 | | *이케이솔루션 | 3 |
| *오종합관리 | 1 | | *투잡 | 1 | | *아이이엔지 | 10 |
| *스비휴맥 | 1 | | *이엔피코리아 | 4 | | *탐시스템 | 4 |
| *스퍼트 | 1 | | *이원시스템 | 2 | | *미코 | 1 |
| *씨에스텍 | 1 | | *스모21 | 1 | | *인솔루션 | 15 |
| *스콘씨에스 | 1 | | *클라스 | 1 | | *마음솔루션 | 3 |
| *이제이아웃소싱 | 4 | | *승산업개발 | 1 | | *일코리아 | 1 |
| *시스템 | 1 | | *케이 | 1 | | *성에이치알 | 1 |
| *터비즈시스템 | 1 | | *엠인더스트리 | 4 | | 강원 (2개) | 3 |
| *이언트컴 | 2 | | 대구청 (3개) | 6 | | *엠에스 | 2 |
| *이앤비맨파워 | 5 | | *인기획 | 1 | | *국고용정보 | 1 |
| *이앤비컨설팅 | 2 | | *음이엔씨 | 3 | | 원주 (2개) | 4 |
| *이에이치서비스 | 1 | | *먼리더스 | 2 | | *원에이치 | 3 |
| *이엘이노베이션 | 1 | | 구미 (2개) | 2 | | *즈피플 | 1 |
| *이케이링커스 | 2 | | *원에이취알디 | 1 | | 의정부 (3개) | 5 |
| *티원 | 1 | | *원테크 | 1 | | *흥 | 1 |
| *이디리더스 | 1 | | 울산 (2개) | 6 | | *한비즈 | 3 |
| *워커 | 3 | | *원 | 2 | | *이엔씨 | 1 |
| *진스텝스 | 20 | | *너스 | 4 | | 고양 (4개) | 14 |
| 서울동부 (12개) | 35 | | 포항 (1개) | 1 | | *온에이치알 | 1 |
| *림잡 | 1 | | *나산업 | 1 | | *스제이솔루션 | 4 |

| | | | | | |
|-------------------|----|------------------|----|-----------------|----|
| *스트피플 | 3 | 양산 (1개) | 1 | *원테크 | 8 |
| *빅 | 3 | *일(본사) | 1 | *먼솔루션 | 1 |
| *탭뱅크 | 1 | 부산동부 (1개) | 4 | 대전청 (7개) | 23 |
| *너지컨설팅 | 1 | *트너스코리아 | 4 | *인BMC | 1 |
| *드민 | 1 | 부산청 (7개) | 16 | *신 | 2 |
| *이피스 | 3 | *일정보링크 | 1 | *일 | 2 |
| *아이시스템 | 1 | *티에스 | 1 | *일리잡 | 6 |
| *이잡케어 | 4 | *비모스트 | 1 | *앤비 | 2 |
| *맥비에스 | 1 | *제이서비스 | 1 | *크노휴먼 | 7 |
| *먼인프라 | 2 | *이티에스 | 1 | *먼시스 | 3 |
| *먼코아 | 14 | *스트인코리아 | 10 | 천안 (5개) | 10 |
| 서울서부 (10개) | 16 | *런리쿠르트 | 1 | *모닝 아웃소싱 | 1 |
| *우시스템 | 1 | 창원 (6개) | 16 | *성기업개발 | 2 |
| *토니아 | 1 | *영산업 | 1 | *인에치알 | 1 |
| *에스엠 | 1 | *케이코리아 | 3 | *드잡 | 3 |
| *리오피앤드씨 | 2 | *풍 | 1 | *니스피플 | 3 |
| *트로맨 | 2 | *엠에스 | 9 | 청주 (5개) | 13 |
| *파크 | 1 | *나인뱅크 | 1 | *큐테크 | 1 |
| *니엘휴먼 | 2 | *먼리소스뱅크 | 1 | *스커리어 | 1 |
| *이디커리어 | 2 | 익산 (3개) | 8 | *이스코리아 | 6 |
| *리어웍스 | 3 | *양실업해외관광 | 2 | *스테이션 | 4 |
| *랜스코스모스코리아 | 1 | *온인 | 3 | *백산업 | 1 |
| | | *래에이치알 | 3 | 충주 (1개) | 1 |
| | | 전주 (3개) | 4 | *른솔휴먼뱅크 | 1 |
| | | *이치알가온누리 | 2 | | |
| | | *결 | 1 | | |
| | | *경개발 | 1 | | |
| | | 광주청 (3개) | 3 | | |
| | | *일을여는사람들 | 1 | | |
| | | *상 | 1 | | |
| | | *릉아이엔지 | 1 | | |
| | | 여수 (2개) | 3 | | |
| | | *산기업 | 1 | | |
| | | *림산업 | 2 | | |

위장도급업체 및 파견업체의 구인 현황 (no _____)

작성일 : 20__년__월__일 작성자 : (소속)

A. 구인업체 (파견·용역·위장도급업체) 정보

| | | | |
|---------------------|---------------|----------------------------------------|----------------|
| 구인업체 | | 위치 | |
| 일하는 사업체 | | 위치 | |
| ※ 사용업체와 위치를 알게 된 경로 | | ① 모집 광고 ② 전화 통화 ③ 직접 면접 ④ 모름 ⑤ 기타 (추적) | |
| 주요 생산품 (서비스) | | 규모 | _____ 명 |
| ※ 원청(일하는 사업체의 원청) | | | |
| 면접방식 | 면접일 : _____ | 면접 장소 : _____ | 면접자 소속 : _____ |
| 출근 예정일 | 출근예정일 : _____ | ※ 근로계약 주체 : _____ | |

B. 구인 정보

| | |
|----------------------|-----------------------------------------------------------------------------------------------------------------------------------------|
| 내가 하는 일 (가급적 자세히) | _____ |
| | ※ 업무지시자 소속 : _____ |
| 구인 요건 (복수체크) |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③ 직무차별 세대별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학력 : ① 고졸 ② 대졸 ③ 학력 무관 성별 제한 : ① 있음 ② 없음 연령 제한 : ① 있음 ② 없음 |
| 고용형태 | _____ |
| 근로계약 기간 | ① 있음 _____ 개월 ② 없음. 정규직 |
| 기본급 (임금형태, 금액) | ① 시급제 _____ 원 ② 일당제 _____ 만원 ③ 월급제 _____ 만원 ④ 연봉제 _____ 만원 ⑤ 건당 _____ 원 |
| 수당 | 상여금 ① 예 _____ %, 원 ② 아니오 식대 : ① 예 _____ 만원 ② 아니오 기타 : ① 있음 _____ ② 없음 |
| 한 달(예상)소득 | _____ 만원 |
| 출퇴근시간 | 출근 : _____ 퇴근 : _____ |
| 잔업유무 | ① 많다 : 주 _____ 시간 ② 가끔 있다.(어쩌다 한 번) ③ 없다. |
| 주말특근 | ① 많다 : _____ ② 가끔 있다.(한 달에 한 번) ③ 없다. |
| 휴식시간 | 점심 : __분 그 외 휴식시간 _____ 분 |
| 교대제 | ① 예 (__조 __교대) ② 아니오 |
| 4대 보험 | ① 예 ② 원하면 가입 ③ 아니오 |

C. 기타

| | |
|------------------|----------------------|
| 구인업체 수수료 유무 | ① 예 _____ 만원 ② 없다 |
| 근로계약 조건, 특이사항 | |

